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etoday.co.kr

제2554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coupang 쿠팡, 美나스닥 예비심사 통과 16

주소·계좌 술술…'문제아' 된 이루다 18

▼ 코스피(11일) 3148.45(-3.73P)		▼ 코스닥 976.63(-11.16P)	
▲ 환율(달러당 원화) 1097.30(+7.5원)		▼ 금리(국고채 3년물) 0.969%(-0.009%P)	

위기의 롯데 '직원공유제'까지 꺼냈다

호텔·쇼핑 등 코로나 타격 큰 계열사 직원, 他계열사로 파견

작년부터 그룹 차원 비용절감·인력구조조정…사업 통폐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롯데그룹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공유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계열사 직원을 인력이 부족한 계열사로 파견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력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직원공유제는 코로나19가 낳은 신풍속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호텔 체인 힐튼과 중국 알리바바 산하 슈퍼마켓 체인 허마셴성 등에서 일시적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이 같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힐튼호텔에서 일시 해고된 근로자를 협력업체인 아마존에서 단기 고용하는 등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업종의 직원을 코로나로 바빠진 배달 업종 등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롯데그룹의 직원공유제는 타사로의 이동이 아닌 계열사 간 이동이라는 점이 다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 월드사업부와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는 직원공유제의 일종인 '사외파견제'를 도입한다. 호텔롯데 월드사업부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7일부터 이날까지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로의 파견 신청을 받고 있다. 파견은 신청자에 한해 이뤄지며 근무 기간은 1~3개월로 월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파견 직원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직영 택배기사와 동승해 전국 택배 지점과 터미널에서 택배 집하 및 배송 업무를 맡게 된다.

호텔롯데 외에 롯데쇼핑(마트부문)과 외식 계열사인 롯데GRS 등도 직원공유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단기 사외 파견을 통해 휴직 인력의 처우를 보장하면서도 일손이 부족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직원공유제 도입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그룹 차원의 비용 절감, 인력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다. 롯데그룹은 유통과 호텔 등 주요 사업이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를 보냈다.

지난해만 백화점과 마트 100여 곳이 폐점했다. 롯데쇼핑, 롯데자산개발, 호텔롯데, 롯데GRS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희망퇴직과 휴직을 비롯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연말 임원 인사에선 100명이 넘는 임원이 퇴임했다.

지난해 이후 사업 부문을 합치고 줄이는 구조조정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말 잠실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등을 운영하는 롯데자산개발은 롯데쇼핑으로 통합됐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롯데쇼핑의 롭스사업부는 롯데쇼핑에 흡수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文 "집값 못잡아 죄송" 부동산 정책 첫 사과

'회복·포용·도약' 신년사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할 것"

'북한과 비대면 대화' 의사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는 비대면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선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주제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문제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창의적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멈춰 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

코로나로 인한 소득 양극화 대책 제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응책으로 자발적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제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 대책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책은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최고위에 공유된 내용은 없다"며 "정책위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김윤호 기자 uknow@

세금폭탄에 증여 대세인데 '양도세 인하' 선 그은 與

작년 아파트 증여 8만 건 사상 최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부동산 정책을 향한 시장 냉소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양도세 완화론과 관련 "논의한 적도 전혀 없고 검토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여권에서 양도세 완화가 본격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시장에선 주택 처분에 따른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올 6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은 5월 말을 시한으로 정해두고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지난해 1~6월엔 양도세 유예를 피하려는 물량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지난해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가 낮은 데다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높으면 다주택자로선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는 아파트 증여 증가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8만1968건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 연간 기록인 2018년(6만5438건)보다도 20% 넘게 늘었다.

부동산 세제가 효과를 못 내자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委 만난 이재용 "면담 정례화·독립활동 보장"

파기환송심 선고 일주일 앞두고 '준법 문화 조성' 의지 재확인
'준법 의무 위반 방지' 연구용역 발주 등 위원회 역할 더 커질 듯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준법감시위와는 앞으로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준법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준법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감시하는 기구다. 2019년 10월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를 요구하면서 설립됐다.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18일 나온다.

위원회는 임시회의에 앞서 이 부회장과 면담을 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면담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1시간 10여 분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구체적 발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으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위원들과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위원회의 요청으로 1시간 정도 면담한 이후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준법감시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이 끝나더라도 위원회가 삼성의 최고 준법통제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책임지고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삼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앞으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이 내놓은 평가를 반영,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 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평가지표, 점검항목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26일 간담회를 하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한국지엠 효자 된 '트레일블레이저'
실적·고용 안정 '두 토끼'

출시 1년 만에 14만대 수출
무급 휴직 298명 전원 복직
8년 만에 적자 탈출 기틀 마련

트레일블레이저. 사진제공 한국지엠

한국지엠(GM)이 개발과 생산을 주도한 중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 1년을 맞았다. 한국지엠은 지난 1년간 이 차를 앞세워 '실적 개선'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1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순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1년 동안 14만 대 이상 수출됐다. 단일 차종 수출량으로는 완성차 5사를 통틀어 현대차 투싼, 코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내수에서도 2만887대가 판매되며 한국지엠 제품군 중 스파크(2만8935대)에 이어 연간 판매량 2위에 올랐다. 전체 수출의 절반을, 내수 판매의 25%를 트레일블레이저가 책임진 셈이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지엠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8.5% 성장했다. 완성차 5사 평균 증가율 4.8%를 훌쩍 뛰어넘었다. 5사의 해외 판매가 16.5% 감소하는 와중에도 한국지엠은 1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경영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148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4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6000억 원을 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적자가 전망되는 상황이지만, 적자 폭이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흑자 전환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에 트레일블레이저는 의미가 깊은 차종이다. 이 차는 한국지엠이 경영난을 겪은 뒤 처음 개발한 신차로, 생산 과정에 GM의 투자와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GM은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디자인과 개발, 생산까지 제작 전 과정을 한국지엠에 맡겼고, 한국 사업장이 세계 시장에 판매될 모든 차를 책임지게 됐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조직(GMTCK)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다. 한국지엠으로서는 이 차의 성공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실함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1월 열린 출시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노동조합 집행부와 협력업체 연합회(협신회) 인사들이 참여해 경영진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안정적 고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지엠이 2018년 경영 악화로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0여 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당시 희망퇴직을 신청한 1200여 명과 전환 배치된 인원을 제외한 노동자 298명은 1년 6개월간 무급 휴직자로 남아 있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 생산을 앞두고 전원이 복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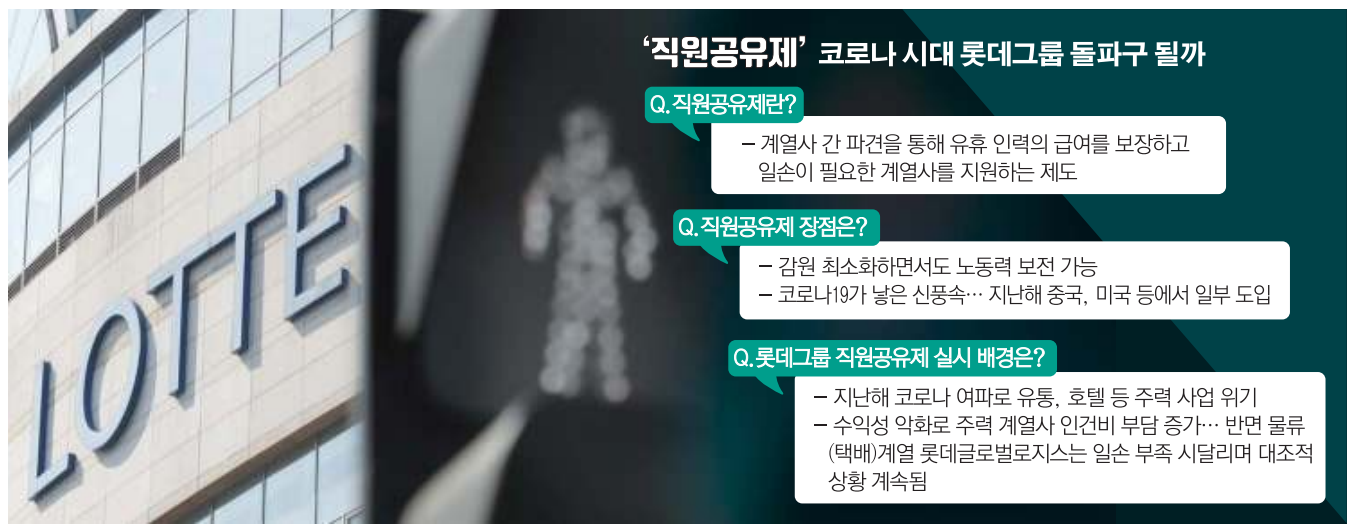
한국지엠 관계자는 "트레일블레이저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마련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결과물"이라며 "국내에서 개발과 생산을 전담해 많은 양을 수출하며 회사의 흑자 가능성을 보여주게 한 효자 차종"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감원 최소화 위한 재배치"… "택배 파견? 관두란 소리"

제도 도입 배경·우려 목소리

코로나에 유통·호텔 주력사업 위기
온라인 사업도 정상궤도 시간 소요
사측 "자발 신청… 법적문제 없어"
직원들 "우회적 구조조정" 비난도



롯데그룹이 '직원공유제'라는 초유의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일까. 유통과 호텔 등 주력 사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그룹이 휘청이는 가운데 인력 감축 없이 최소 비용을 통해 최대 효율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다만, 직원공유제를 둘러싸고 그룹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파견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파견'이 향후 구조조정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유통 공룡' 롯데그룹은 지난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사업을 하는 롯데쇼핑과 호텔, 면세,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호텔롯데의 부진이 극심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초 5년 내 매장 200여 곳을 줄이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고,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마트와 백화점을 합해 100개 가까운 매장을 정리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844억 원으로 전년(4279억 원)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3분기까지 영업손실 4632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자산개발, 호텔롯데, 롯데GRS 등 계열사에선 지난해 희망퇴직과 휴직을 비롯한 인력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연말 인사에선 칼바람이 불어 100명이 넘는 임원이 옷을 벗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육지책을 도입하고도 올해 경영 환경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다. 당장 올 들어서만 해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연말 연초 대목으로 꼽히는 세일과 신년 할인 행사를 하지 못했다.

하늘길이 끊겨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고,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호텔롯데의 호텔사업과 면세사업, 월드사업(테마파크 사업) 역시 정상화될 리가 만무하다. 쿠팡과 마켓컬리를 비롯해 신세계그룹의 SSG닷컴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선보인 그룹 통합 온라인 채널인 롯데온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도 그룹의 고심을 깊게 한다.

서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에 대해 "실적 회복은 효율화 작업에 따른 효과가 크며 아직 전사적 매출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업 역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공유제는 감원이라는 최악의 방안을 최소화하면서도 노동력을 보전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룹이 선택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호텔롯데와 외식계열사 롯데GRS 등은 지난해부터 일부 직원에 대한 휴직을 실시해 왔다. 반면 물류(택배)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경우는 최근 택배 물량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단기 사외 파견을 통해 휴직 인력의 처우를 보장하면서도 일손이 부족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파견 희망자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이 필요한 인력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직원공유제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파견이라 쓰고 구조조정이라 읽는다", "상식 밖의 일로 직무와 무관한 택배 업무 파견이 말이 되는 일인가", "택배인력 보강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니 어처구니없다"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따라서 롯데로서는 내부적인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다만, 롯데의 이번 인력 재배치는 자발적 신청에 의한 파견인 만큼 법리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부당 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신청에 의한 계열사 간 이동 조치에 법적 하자는 없다"며 "심지어 강제로 전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는 기업 내규에 따른 인사발령"이라고 지적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엎친데 덮친 유통업계

임직원·점포수 마른수건 짜냈는데 '생존열쇠' 이커머스마저 규제 위기

코로나19의 습격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유례없는 매출 급감에 허덕이면서 문을 닫는 매장이 늘고 일자리마저 줄고 있다. 유통공룡들은 비대면 시대에 매출이 늘고 있는 이커머스로 눈을 돌렸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마저도 메스를 들이댈 분위기다.

지난해 200여 개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롯데그룹은 이미 100여 개 매장의 문을 닫고 주요 계열사 직원들의 휴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점포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롯데뿐만이 아니다. 신세계, 현대는 물론 갤러리아까지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몸집을 줄이고 있다. 야심차게 문을 연 점포를 매각하는가 하면 매출 부진 점포의 문을 닫고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커머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백화점과 이마트의 임원 수를 각각 20%, 10% 가량 줄였다. 이마트는 '삐에로쑈핑'과 '부츠' 등 전문점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점포당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12월 한화솔루션에 흡수합병됐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2019년 적자 사업인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했고 수원점과 천안점에 이어 가장 최근 오픈한 광교점까지 매각하는 초강수를 뒀다.

직원 99%를 정직원으로 바꾸며 위기 속의 리더십이 돋보였던 홈플러스도 지난해 안산점·대전탄방점·대전둔산점·대구점의 점포 자산 유동화를 단행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일순 대표까지 사임 의사를 밝혀 위기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장이 떠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

면세시장은 더 심각하다. 하늘길이 끊긴 면세점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에서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무급휴직으로 직원 급여 부담이 줄었음에도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롯데는 110억 원, 신라는 142억 원, 신세계는 205억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몇 년 전부터 이커머스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이커머스를 넣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중개플랫폼과 새벽배송에 대한 규제가 포함돼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 소상공인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SSG닷컴, 마켓컬리 등에 중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한 결과 참여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최소 45%에서 4배까지 늘었다. 이커머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상인의 매출 급감은 불 보듯 뻔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이 아닌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오히려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신용대출 폭증 심상찮다"…금감원, 은행 대출 긴급 점검

"마이너스 통장, 일단 받아 놓자"
4영업일 만에 4534억 대출 늘어
연초 이례적 현상에 목표한도 점검
코스피 3000시대 '빚투' 영향 우려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돌파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은행권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가파르게 상승한 신용대출이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필요시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초 국내 증시 활황과 맞물려 은행권이 취급을 재개한 가계대출이 폭증세를 보이자 이날 오후 주요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은행이 제출한 월별 목표치 속도에 맞게 신규 대출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은행별 연초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은행권의 고액 신용대출을 조이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지난달 이미 월별 관리 목표치를 제출했다"며 "연초임에도 관리 한도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 사이에서는 1월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1월의 경우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247억 원 감소한 109조6861억 원을 기록했다. 1월은 계절적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이사철도 아닐뿐더러 통상 연말 상여금 등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아 되레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일 기준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10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33조6482억 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4534억 원 증가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4~7일 5대 시중은행에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수는 총 7411개로 집계됐다. 일별로 보면 지난달 31일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1048건이었지만, 이달 7일에는 1960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통장으로 집행된 신용대출 잔액 증가분은 2411억 원으로, 전체 신용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신용대출이 재개되며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통상 연초에 한도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다 올해는 연말 총량관리를 위해 은행이 묶었던 신용대출을 재개하자 고객 사이에서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가 커진 것 같다"며 "월별 관리목표가 있어 은행도 마냥 대출 수요를 받아낼 수는 없다. 이를 아는 고객들도 필요할 때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수시로 한도 증액을 문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이런 현상을 '코스피 3000시대' 영향으로 보고 있다. 빚내서 투자하는 과열된 '빚투' 현상 탓에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만들어낸 증시 호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본인의 투자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숙한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빚투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은행권은 신규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출의 부실 관리 역시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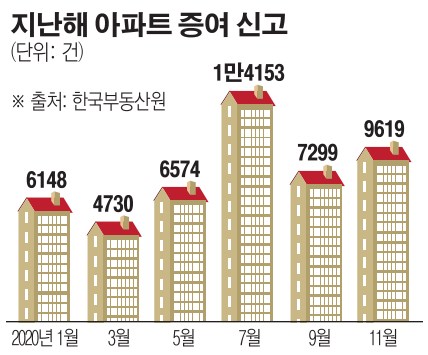
서지연 기자 sjy@

'매물절벽' 부른 다주택자 증세

"양도세 폭탄 맞느니 증여를"
고가주택 밀집 지역서 많아
다주택자 처분 매물 감소로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금 강화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맞서면서 부동산 정책 스텝이 꼬이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증세, 증여 부채질**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만 해도 3만5454가구가 증여됐지만, 7~11월엔 그보다 30% 많은 4만6514가구가 증여됐다. 7월 한 달에만 증여 1만4153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7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이 이 같은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단 포석이었다.

세제 압박에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응수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싼값에 집을 내놓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여로 가족 간에 주택을 분산해 놓으면 개인당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부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서울에선 송파구(2699가구)와 강동구(2383가구), 강남구(2109가구)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했던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증여가 급증하자 정부·여당은 증여 취득세를 최고 세율은 12%로 인상, 흐름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지금까지 증여 바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증여,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발목** = 문제는 증여가 늘어나면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 증여를 통한 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세제가 바뀌지 않는 한 지난해 증여된 주택 상당수가 거래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매매되고 증여되느냐에 따라 내년 주택 시장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피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 매물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올 상반기에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돌아서면 매물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집값 상승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부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편에선 새 세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그 기조가 후퇴하면 조세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양도세 관련 법안들이 효과를 막보려 하는 시점에서 세금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종화 기자 pbell@

"풍부한 자금 시장하락 방어… 수익률 눈높이 낮춰야"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센터장

미래에셋대우 박희찬 이사

KB증권 신동준 센터장

한국투자증권 유종우 센터장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센터장

메리츠증권 이경수 센터장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

하나금융투자 황승택 센터장

이투데이가 코스피 3000시대를 맞아 11일 8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상대로 과잉유동성이 낳은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종목 편식(반도체·전기차) △불법 '주식리딩방' 등에 대한 우려와 시장전망을 묻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던 코스피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11일 코스피는 3.73포인트(0.12%) 내린 3148.45에 거래를 마쳤다. 3161.9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동학개미가 4조5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한때 3266.23(+114포인트)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 판정패했다. 최근 코스피의 등락 속도는 시장 전문가들마저 놀라게 만들 정도다. 낙관론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4000 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증시 격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지수를 보면서 과열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유동성이 요즘처럼 강했던 때가 없었던 만큼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열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증시로 몰려드는 자금과 경기회복(기업 실적) 기대감을 고려하면 코스피는 '달리는 말'과 같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기업 이익이 좀 더 큰 폭으로 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부동산에서 폭망, 주식밖엔 없다" =코스피 3000시대의 1등 공신인 동학개미는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초저금리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 이날 개미들은 4조4796억 원가량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다. 하루 순매수로는 사상 최고치다.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같은 유동성의 첫 번째 배경은 초저금리 환경으로 1%대 예금 금리 환경에서 기존의 저축이라는 재테크 수단이 갖는 효용이 감소했다"면서 "또한 2030의 경우 부동산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도 관찰되는데 수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부동산과 달리 주식시장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도 "현금화가 용이한 자금을 포함하는 지난해 10월 M2 통화량은 3150조 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35조 원가량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향후 개인들의 매수세는 유동성을 발판 삼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투자자들의 허탈감과 조바심이 매수세를 부채질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자산배분팀장(이사)은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주식투자 성공 스토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도 쉽게 들리는 상황인 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기 과열' 속 엄동설한 왜 = 증시에 강세 속에서 종목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코스피, 그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지수는 8일까지 9.69%가 급등했지만 코스닥지수는 2.00%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센터장들은 특별할 것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각에 따라 쏠림현상은 건강한 조짐은 아니지만, 이 같은 쏠림현상은 강세장에서는 늘 나타난다"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나 이익 측면에서 양호하고, 최근 대형주 강세는 현대차 등 기존 구(舊)경제에 가까운 기업들이 신(新)경제에 진입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만큼 시대 전환을 반영하는 흐름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제언

동학개미, 4.5조 담으며 폭주
기관·외국인 팔자에 '약보합'
강세장 '종목쏠림' 흔한 현상
리딩방 의존 '묻지마 투자' 경계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대표주들의 긍정적인 향후 실적 전망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역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활개 치는 '리딩방'= 한국경제증권, 미래에셋증권. 최근 리딩방은 국내 대형 증권사와 비슷한 이름을 달고 투자자들을 모아 추천 종목을 제시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따로 종목 추천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지어 유명 애널리스트를 사칭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명백한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애널리스트가 리딩방 또는 주식 채널을 개설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면서 "사칭 채널이 발견되면 사내 컴플라이언스팀이나 규정에 의해 폐쇄 의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센터장들은 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를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딩방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제도권을 벗어난 것이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어디로 =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코스피가 어디로 갈지'이다.

신동준 센터장은 "KB증권은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3~5월경 증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기대감 및 초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유동성에 따라 증시 상승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역시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을 미리 당겨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고점을 치는 시기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 환경은 당분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풍부한 증시 대기 자금은 시장 하락 시 지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승우 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PER 측면에서 3~4년 장기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2~3개월 만에 코스피가 30%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는 한 타임 쉬고 진입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희찬 이사 역시 "증시 강세가 올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급하게 주식을 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주식을 신규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수익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는 점, 아직까지 주식을 안 해 봤다면 위기관리능력이 걱정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손엄지 기자 eoml@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공급으로 방향 전환

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

경제 29번, 코로나 16번 언급
상반기 경제 코로나 이전 회복
권력기관 개혁, 안착시킬 것
'MB·朴 사면론' 언급조차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을 새해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포용'을 새롭게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합'과는 결이 다른 단어다. '통합'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 뒤에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중순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면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가급적 언급을 삼갔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을 제외하고 '경제'로, 문 대통령은 총 29번 말했다. 또 '코로나'는 16번, '회복'은 15번 언급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사실상 첫 대국민 사과가 나왔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지 1년 만이다. 이는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자,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는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반드시 집값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도 받아들여진다. 부동산으로 인해 들끓는 민심을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 막바지 국정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한 '주택 공급 확대'를 돌파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구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랜선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일환 기자 whan@

北 김정은, 당 총비서로 추대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져… 측근 조용원 '서열 5위'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하지만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진 것은 물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 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9일 당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5년 만에 환원한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정보당국은 김 부부장이 외교·안보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당대회에서 직책이 대폭 격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당대회 직후 인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예상은 벗어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용원은 요직을 도맡으며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기존 최룡해·리병철·김덕훈 등 5인으로 구성됐다.

대미 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다.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장단 명단에서 빠져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중대재해법 통과 후 재계 만난 주호영 "中企 지원"

"대안 입법 계획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계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생할 문제점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단체 임원진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통과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가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그래도 우려가 클 것 같다"며 "우려나 건의를 좀 듣고 법 심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여러 기업의 부담을 법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 주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조속히 해 달라"며 "징역형을 하한으로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3년 이하'처럼 상한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그나마 기업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데 건설 특성을 반영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안 입법을 제시하기보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 입법이 당장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 마련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시행 전이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지원이나 안전 예방 조치에 관한 지도, 교육 자제가 1년 이상 밀려 있는데 그런 준비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이 급하게 만들어졌기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을)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주 원내대표와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COVER 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역력 백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브라보가 만난 사람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타투이스트 조영신

책임감 있는 자유 누리는, 계절의 나이를 살다
가수 겸 정신과 의사 김창기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변호사 권영설

재미있는 性 인문학 사시장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따라서 유행이다. 그런데 성만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性'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적확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랍기까지 하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본다.

라떼,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영웅담이나 에피소드, 시간을 되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지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50+ 워라밸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약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신한의 또 다른 이름,
기발한 프로덕션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능성들과 함께해 온 신한

이제 스타트업, 청년, 소상공인들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새 이름을 붙입니다

'기발한 프로덕션'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더 크게 키워낼 때까지
신한인듯 신한아닌 신한같은,
기발한 프로덕션은 계속 됩니다

Hope Together.
Grow Together.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상반기 위생검역 등 손질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메가 FTA' 대응 국내제도 개선
새 통상 주도… "FTA 실익 커"
美바이든 정부와 5대 분야 협력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를 공식화했다. CPTPP 가입에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의 가속 상황을 고려해 한국도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야 할 길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CPTPP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해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인 만큼 메가 FTA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PTPP는 가입국 간 경제가 연결되고, 원자재 등의 소싱(구매)을 공동으로 하면서 상품도 역내에서 함께 판매하게 돼 유럽연합(EU)처럼 공동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CPTPP는 기회가 될 때 가입이 필요하다"며 "창문이 열렸을 때 미국을 포함해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대 목표로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 △ODA 확대와 구매력평가(PPP) 활성화 등 개발협력 사각지대 보완할 개발금융 다변화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본부유치국(GCF) 협력 등 국제논의 주도를 제시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3차 고용안정지원금 이달 지급 1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한 시민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날부터 지급된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11.8조 지급 '역대 최대'

작년 실업급여 3.7조 증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작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5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작년 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8507억 원으로 기존 최고치인 2019년 8조913억 원을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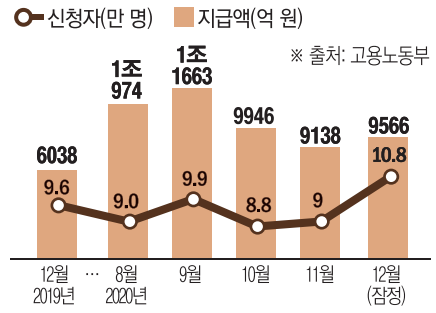
지난해 실업급역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로 여파로 실직자가 늘고,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 생계 보장 기능이 강화된 것이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작년 7월(1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8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만9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으로 가입 증가세가 호전됐던 전달(39만4000명)과 비교해 15만 명 넘게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연말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종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가입자 증가폭이 대폭 둔화됐다"며 "특히 숙박·음식, 운수업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신청자·지급액 추이



실제 코로나19 고용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 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은 -7700명, 음식업의 경우 -3만100명으로 확대됐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도 2만1000명 줄면서 작년 9월 이후 1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 여파로 주력 일꾼인 3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보다 5만6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전체 연령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대 인구 감소와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이 30대가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30대 가입자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신규 확진 41일 만에 400명대… 지역사회 전파 여전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감소… 일주일 뒤 600~700명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41일 만에 5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주는 주말효과가 반영됐다고는 하나,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오가던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0 정도로 떨어졌고, 이번 주에는 0.88로 1 이하로 감소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0.88에 해당하는 수치에 따라서 1주 후에 한 600명에서 700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51명 증가한 6만911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1일(451명) 이후 41일 만이다. 12시(정오) 기준으로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총 10명), 안산시 복지시설(총 13명), 광주 서구 시장(총 12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추가 20명, 누적 115명) 등 기존 감염경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으나, 전반적인 확산세는 확연히 잦아들고 있다.

다만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들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일부 종교시설에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방역에 큰 부담이다. 이주 중 확실한 추세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17일 예정된 방역조치 완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 본부장은 "최근 1주간 확진자 감염경로 중 '조사 중'이 26.2%"라며 "접촉자 파악 미흡으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원이 존재함에 따라,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 위험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는 영국 변이와 관련된 게 15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와 관련된 게 1건, 총 16건이 보고됐다"며 "입국자에 대한 기존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발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명령을 통해 대응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올 세계경제 키워드 "V.A.C.C.I.N.E"

전경련, 백신형 경제 회복·美 귀환·부채 등 7개 꼽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세계 경제와 사업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일곱 가지 특징을 꼽고 'V.A.C.C.I.N.E'이라는 단어로 제시했다.

△백신형 경제회복(Vaccine-Shaped Economy)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미친 부채(Crazy Debt) △중국의 반격(China will fire) △ESG 투자시대(Investment in ESG) △글로벌 뉴딜 열풍(New Deal is Everywhere) △환경이 경제다(Environment is the New Economy) 등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V자형'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의 경우 최대 4.8%에서 최저 1.8%까지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국제통상 체제를 주도하는 선도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미국의 다자체제 복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의 관계와 멕시코·EU 등 악화했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노력도 점쳐진다.

올해는 사상 최저의 금리와 최대 부채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 말 글로벌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277조 달러(약 30경3500조 원)로 불어났는데 전경련 측은 제로금리와 지속적인 정부지출 확대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장기적인 패권경쟁에 맞서 내부 역량 강화와 국가 현대화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사 결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를 평가하는 흐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가 출범하고 미국이 시의적절하게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올 만기 도래 국고채 48조, 돈 풀기에 내년 61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영향으로 2023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68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발행잔액은 48조1930억 원에 달한다.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물가연동국채를 모두 합친 수치로, 국고채 발행·교환·바이백(조기상환) 등에 따라 매월 변동이 있어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만기 도래 물량이 더 많아진다. 2022년 만기 도래 국고채 물량은 61조2405억 원, 2023년에는 67조761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과 내후년 만기 도래 물량이 늘어난 것은 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추진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새로 발행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트럼프 닦달에… 월가 '中투자 상품' 무더기 상폐

'中기업 투자금지' 행정명령 발효에 500개 홍콩거래소 상품 손떼기로 개미 손실·정부 늑장대응 비난 봇물

월가 대형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투자사들을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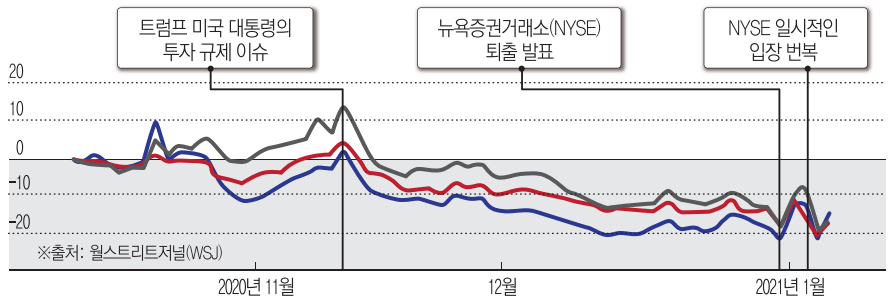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증권거래소(HKEX)에서 거래 중인 약 500개 구조화 상품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중국 3대 이동통신사를 퇴출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중국 기업 7곳을 자사의 일부 지수에서 제외했다. 홍콩에서의 상장 폐지 결정은 MSCI 지수 제외에 따른 조치다.

HKEX는 이날 "500개 구조화 상품 상장 폐지 결정은 미국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우린 질서 있는 상장 폐지를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빠른 환매를 위해 발행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막판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최근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텐센트 QQ월렛 등 중국 결제 앱과 미국인,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뉴욕증시 퇴출 앞둔 중국 이통사 주가 추이



투자 금지 행정명령은 11일 발효된다. 적용 대상 회사는 35곳으로, 3대 이통사 역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퇴출당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오히려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지난주 중국 기업 상폐와 관련해 당국이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도이치방크의 디팍 퓨리 미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 같은 불확실성은 특히 중국 국영회사의 투자에 있어 어떤 장기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개미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주식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NYSE가 상폐 결정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2003년부터 차이나모바일을 투자했던 전 자동차업체 임원 아닐 힝웨씨는 NYSE의 상장 폐지 결정에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했다.

투자자들이 당장 손을 털고 나갈 필요는 없다. 행정명령은 11월까지는 투자자들이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제재 불확실성을 우려해 개입하는 것을 꺼리면서 많은 투자자가 서둘러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지타운대의 제임스 에인절 금융학 교수는 "대부분의 증권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규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겐 고객의 요청을 거부하고 정부를 탓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 소재 부티크 투자 관리회사인 레제스로우프&컴퍼니의 레제 스로우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개업체가 중국 투자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모바일 주식을 7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성급한 시행은 어떤 것보다 미국 주주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이는 막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비대면 서비스' 속도내는 日 세븐일레븐, 무인점포 2배로

〈5년내 1000곳 운영〉

코로나 여파 자판기 사업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일본 내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하고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1위 이동통신사 NTT도코모가 자판기를 통한 무인 판매 사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이 2025년도 말까지 전국 무인점포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해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도코모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100개 지역에서 컵라면, 전지 등 약 50점의 상품을 넣은 자판기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맨션이나 사무실의 빈 곳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오사카시 등 다른 대도시권에도 차례로 도입한다. 상품의 보충 등은 도코모의 위탁사업자가 담당해 협업하며, 구매 분석은 스타트업 '렐릭(도쿄·시부야)'이 협업해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코모는 단순 자판기 사업이 아니라 IT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일손을 이용하지 않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판기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탑재돼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개폐나 재고관리, 온도 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전용 앱을 사용해 스마트폰 결제나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낸다.

세븐일레븐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사무실이나 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 도시락이나 빵, 음료, 디저트 등 한곳에서 최대 92개 품목을 진열한다. 코로나19 감염 대응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과 교육기관 내 식당이 휴업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인 판매기를 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세븐일레븐은 이미 무인점포를 500곳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5년 내 1000곳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본사에서 각 단체로부터 설치 요청을 받은 뒤 인근 점포에 운영을 타진한다. 도입 점포 직원이 회전율에 맞춰 1일 1회 이상의 상품을 교환하고, 매상 또한 도입점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무인점포의 출점은 운영 비용을 낮추면서도 수익 기회를 늘릴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미니스톱, 로손 등 세븐일레븐 경쟁사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이 무인점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또 소매업계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 일본 경제 전체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기후변화에 세계 곳곳서 눈폭탄·한파 지구촌 곳곳이 새해 기후변화로 인한 눈폭탄과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육상 자위대원들이 10일 폭설로 차들이 계속 정체된 후쿠이현 호쿠리쿠고속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 중부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평년 대비 최대 10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부터 내린 폭설로 현재까지 8명 이상이 사망하고, 27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도 전날 10년 만에 내린 눈이 50cm로 5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설량을 기록했다. 아열대 기후인 대만은 북극발 한파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틀간 126명이 사망했다. 후쿠이/AP연합뉴스

美 하원 이르면 오늘 '트럼프 탄핵' 표결

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탄핵소추받는 대통령 '불명예'

미국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결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두 번째 탄핵소추를 받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정국이 한층 더 긴박하게 돌아가게 됐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는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한 하원이라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표결에 부치자고 말했다"며 "화요일(12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13일)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을 물어 11일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수 435명의 하원에서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민주당은 22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을 제출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은 지난 2019년 12월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바 있다.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하원에서 탄핵을 두 번 당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앤드루 존슨이 1868년에 권력 남용 문제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8년에 사생활 문제로 각각 하원 탄핵을 당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 번 당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하원에서 결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원의 탄핵 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 현시점에서 상원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상원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권하에서 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민주당도 바이든 정권 초기 추가 경기부양책 등 핵심 정책과제 처리가 늦춰질 수 있어 하원에서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상원에 송부하는 날짜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뒤 100일 정도까지 미루자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 탄핵 재판은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변효선 기자 hsbyun@

사우디, 탄소배출 없는 첨단신도시 세운다

빈 살만 왕세자, 경제 다각화 총력… 더 라인 인프라 구축만 2000억 달러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다각화의 일환으로, 자동차와 도로가 지상에 전혀 없으며 탄소 배출도 제로(0)인 최첨단 친환경 도시 건설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국영방송에 출연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네옴'의 첫 사업인 '더 라인'을 공개했다.

왕세자가 세우려는 첨단도시 네옴은 서울의 약 44배 규모(2만 6500㎢)로 이집트와 요르단에 인접한 사우디 북서부 홍해 해안에 조성될 예정이다. 5000억 달러(약 548조9500억 원)가 투입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살만 왕세자는 170km 길이의 '더 라인'에 대해 "자동차와 도로가 없고 자연을 중심으로 지어진 '초연결 미래사회 벨트'"라고 설명했다. 초고속 터널과 자율주행 전기차를 중심으로 건설되는데 도시 내 이동이 20분이면 가능하다. 공사는 올 1분기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은 철저하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다.

도시 인구는 100만 명으로 2030년까지 3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0~2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네옴은 살만 왕세자가 미래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2017년 야심 차게 제시한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이다.

이날 살만 왕세자는 해수면 상승과 탄소 배출량을 언급하며 "개발을 위해 왜 자연을 훼손해야 하는가"라면서 "전통적인 도시 개념을 미래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옴의 사업자금은 사우디 정부 재정과 국영 공공투자펀드(PIF) 자금, 해외자본 투자 유치 등으로 마련한다.

사우디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우디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석유 부국 사우디가 '탈석유' 경제 실험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김서영 기자 0jung2@

〈1~2월〉

4대 은행, 점포 26곳 통폐합… '디지털 혁신' 가속도

은행-증권 업무 원스톱 처리 등 지역 특화점포 구축 경쟁력 확보 영업점 축소에 인력 감축 불가피

지난해 216개 점포를 없앤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올해도 점포 수 정리에 나선다. 거점별 특화를 명목으로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1~2월 중에 영업점 26곳을 축소할 예정이다.

◇1~2월 26곳 사라져 = 디지털·비대면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점포 축소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바람이 거세게 일면서 점포 축소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5대 은행의 전국 점포 수는 2019년 말 4640개에서 지난해 4424개로 216개 감소했다. 2018년 38개, 2019년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25일 영업점 20곳을 통폐합한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1일 3개 점포를 통폐합한다. 하나은행도 1~2월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영업점을 통폐합해 점포 2개를 줄인다. 우리은행은 연내 17곳의 영업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2017년 대대적인 영업점 통폐합 이후 4년 만에 점포 수를 줄인다. 이달 16일 경기 안산지점, 서울 대치 출장소, 동부이촌동 출장소, 동춘동 출장소 등 4곳을 통폐합해 총 영업점 수가 기존 43개에서 39개로 줄어든다.

◇특화점포 구축, 사실상 구조조정 수순 = 은행들은 영업점을 줄이는 대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점포를 만들어 경쟁력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말 서울 서소문 지점에 미래형 혁신 점포 '디지택트(디지털+콘택트) 브랜치'를 서울 서소문 지점 안에 마련했다. 디지택트 브랜치는 고객이 화상 상담 창구에서 전담 직원과 원격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융합 점포'다.

하나은행은 '컬처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은행·증권 복합점포로써 차별화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이달부터 거점 점포 한 곳과 인근 영업점 4~8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영업점 간 협업체계 '밸류 그룹(VG)'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VG에 속한 영업점들이 공동 영업을 하며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내부 경쟁을 지양하는 대신 VG그룹 내 영업점별로 '특화 영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KB금융그룹도 한 곳에서 은행, 증권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WM(자산관리) 복합 점포'를 도입,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SC제일은행도 올해 증권 비즈니스와 결합한 복합 점포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말이 좋아 특화점포지 사실상 거점 점포를 통폐합 하는 구조조정으로 해석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비대면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찾을 필요가 줄어들면서 은행 점포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점포가 줄면 인력도 함께 줄여야 하는 만큼 점포 운용의 효율화를 앞세워 사실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명예퇴직을 실시한 농협, 하나, 우리은행은 예년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일부 은행에선 40대까지 퇴직 범위를 확장하는 등 인력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초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명예퇴직자를 합치면 5대 시중은행에서 2000명이 넘는 은행원이 직장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700 여명을 웃도는 수치다.

김범근 기자 nova@

금융지주 새해 경영 전략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1년 KB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완전한 금융플랫폼 기업 변모"

KB금융, 경영전략회의

윤종규 회장 "모든 경영진 합심 고객의 평생 금융파트너 도약"

"금융회사의 가치는 유지하되, 완전한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해야한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2021년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올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넘버원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경영진들이 힘을 합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자세로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1년 경영계획 공유 등을 통해 그룹의 전략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경영진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올해 그룹 경영전략방향 'R.E.N.E.W 2021'의 △핵심경쟁력 강화(Reinforce the Core) △글로벌 & 신성장동력 확장(Expansion of Global & New Biz) △금융플랫폼 혁신(No.1 Platform) ▷ESG 등 지속가능경영 선도(ESG Leadership) △인재양성 및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World class Talents & Culture)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경영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상호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손태승(오른쪽 두 번째) 우리금융 회장그룹이 11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시너지홀에서 임직원과함께 지주 창립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혁신 기반 내일의 가치 실현"

우리금융, 지주 창립 기념식

손태승 회장 "ESG 경영 원년 전 그룹사 동참 디지털 혁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시너지홀에서 그룹체제 전환 2주년을 맞아 지주 창립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했다.

손태승 회장은 이날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며 "디지털 혁신, 경영 효율성 제고, 시너지 극대화 등 그룹 차원의 미션에 전 그룹사가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손 회장 및 그룹사의 소수 임직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그룹 임직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했다. 기념식에는 우리금융그룹에서 후원중인 임성재 PGA프로 선수 등의 영상 축사가 전해졌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그룹체제 3년차를 맞아 그룹의 비전과 슬로건 등 가치체계도 새롭게 선포했다. 손 회장은 "그룹의 새로운 50년, 100년을 그릴 수 있는 가치를 정의할 때"라며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전 임직원 앞에서 선포했다. 이어 "우리금융그룹이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 시대를 열었지만, 다시 은행체제를 거쳐 민영화와 그룹체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손 회장은 올해를 ESG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그는 "그룹의 ESG 경영 전략에 모든 자회사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롯데손보 '디지털 전환' 조직 개편 AI·빅데이터 활용 신사업 공략

롯데손해보험은 전통적 보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DT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보험업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DT)'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 12월 기존 '디지털그룹'을 'DT그룹'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DT그룹은 앞으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DT인프라 지원과 함께 디지털 제휴를 통한 신 채널 발굴 등 시너지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원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파일럿 도입하는 등의 '디지털 중심의 업무 고도화' 또한 진행 중이다.

롯데손보는 이러한 고도화를 통해 직원들이 고부가가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신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 구현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캐롯손보 '퍼마일자동차보험' 출시 11개월 만에 가입 10만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주력상품인 '퍼마일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계약 수가 출시 11개월만에 10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퍼마일자동차보험은 매월 기본료에 탄만큼만 후불로 내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으로 캐롯이 지난해 2월 선보였다. 퍼마일자동차보험은 출시와 동시에 고객들로부터 특유의 혁신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으며 가입 계약 수가 증가해오다 지난해 10월 배우 신민아와 함께하는 신규 광고 효과가 더해지며 출시 8개월여만인 11월초 5만 건을 돌파했었다.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만 건 돌파 2개월여만에 10만 건을 기록했다.

캐롯은 이러한 혁신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3월에는 퍼마일의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이 BM(Business Model) 특허를 획득하고 '새로운 위험 담보'와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가 배타적 사용권도 6개월씩 획득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현대해상, 어린이 종합보험 누적 판매 400만건

현대해상은 어린이 전용 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가 누적 판매 4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2004년 7월 업계 최초의 어린이 전용 종합보험으로 출시된 이후 16년 동안 400만 건(2370억원)이 판매돼 업계 최장·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중병인 어린이CI(다발성 소아암, 8대장애, 양성뇌종양 등)를 비롯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시력교정, 비염 및 아토피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장되지 않던 선천이상 보장을 비롯해 영유아에게 취약한 유행성 감염병인 수족구·수두,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성장판손상골절·기흉, 임산부를 위한 분만전후출혈수혈 진단 담보 등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또한, 건강·육아상담, 시기별맞춤LMS, 병원안내 및 예약대행, 검진안내 및 예약대행 서비스와 자녀의 체온정보에 따른 열관리 지침과 지역별 발열현황 및 유행성 질병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굿앤굿어린이 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자녀의 건강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한·중·일 '배터리 5强' 성장 고속도로 탔다

위부터 LG화학과 GM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각 사

LG에너지·CATL·파나소닉·삼성SDI·SK이노 발주 집중
자본·기술 장벽 높아…신규업체 진입 당분간 어려울 전망

세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5강(强) 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에 비해 자본과 기술 측면의 진입 장벽이 높아 현재 한·중·일 3국의 시장 지배력이 쉽게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과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77.3%로 기록됐다.

5개사는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 기존 완성차 OEM은 물론 새롭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디자인, 설계 위주의 스타트업들의 2차전지 발주가 집중되면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5개사의 시장 영향력이 당분간 막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춰야 시장에 진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 시장은 커져만 가는데 핵심 구성품인 2차전지를 공급 가능한 회사 수는 제한적"이라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매우 높으며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어서 공급 레퍼런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터리 수주가 5개사로 몰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능력을 2023년까지 260GWh(기가와트시)까지 늘릴 계획이며, SK이노베이션도 미국 배터리 공장 가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연간 배터리 생산능력을 100GWh까지 늘릴 방침이다.

삼성SDI도 수주 확대에 따른 증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CATL은 올해 조(兆) 단위 투자를 통해 최대 185GWh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파나소닉 역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업계에선 5개사가 '규모의 경제'까지 갖추게 되면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짧은 시간에 이들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협력사를 확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체 개발을 통해 배터리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오랜 시간 기술력과 생산능력 화보에 힘을 쏟아온 배터리 업체들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배터리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후 미국, 중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친환경차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16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완성차 OEM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설계를 맡은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배터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LS일렉트릭 "연 10% 가속성장"… '비전 2030' 선포

구자균 회장, 경영·사업·문화 혁신
"장수기업 아닌 시장 지배자 목표"

LS일렉트릭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 성장을 담보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속성장'을 거듭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다.

LS일렉트릭은 1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인 구자균 회장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공유하는 '언택트 디지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가속 성장을 실현할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향후 10년간 혁신을 넘어서는 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단순 생존, 현상 유지로 '장수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압도적인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기업', '시장의 지배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S일렉트릭은 2030년까지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전사적이고 근원적인 변혁 차원에서 경영·사업·문화 등 3대 혁신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향후 10년 성장을 실현할 '언택트 디지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임직원이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 LS일렉트릭

경영 부문에선 지난해 LS그룹 최초로 도입한 CIC(사내 독립기업) 체제 하에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매크로(Macro) 경영을 통해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사업 부문에선 글로벌 사업 모델의 완전한 현지화, 디지털 및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국경 없는 비즈니스의 형태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 같은 경영과 사업의 혁신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탤런트(Talent)를 확보하고, 일하는 방식, 사업하는 방식을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애자일하게 바꾸어 나가는 문화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S일렉트릭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2030년 기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글로벌 사업 비중 70% 이상, 디지털 신규 비즈니스는 50%를 넘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핵심가치는 'ACE'로 요약된다. ACE는 시장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적의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민첩한 실행력(Agility), 최고를 지향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사업 방식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과감한 도전(Challenge), 스스로 일의 주인이 되고 동료,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Excellence)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한편 LS일렉트릭은 지난해 33년간 사용해온 '산전'이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LS ELECTRIC(일렉트릭)'을 새 사명으로 변경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두산인프라, 中 굴착기 10년래 최다 판매

지난해 1.9만대…전년비 22%↑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10년래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작년 중국에서 굴착기 1만8686대를 판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판매량인 1만5270대보다 22.4% 증가한 것으로, 2011년 1만6700여 대 판매 달성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중국 굴착기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13%가량이었던 시장점유율을 현재 23%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세계 1위 업체인 미국 캐터필러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 중 최초로 굴착기 누적생산 2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시장 성장세에 맞춘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와 더불어 온라인 라이브 서비스 교육 진행 등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중국 굴착기 시장은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영업 채널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 신형 협동로봇 패키지 공개

장비 3종·애플리케이션 솔루션
자율주행차에 로봇 결합제품도

㈜한화 기계 부문은 협동로봇 신제품 'HCR(Hanwha Collaborative Robot) 어드밴스드(Advanced)' 모델과 협동로봇 솔루션 패키지 '어드밴스드 솔루션(Advanced Solution)'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HCR 어드밴스드 모델은 작업 가능 중량을 기준으로 HCR-3A, HCR-5A, HCR-12A 등 3종<사진>으로 출시했다. 각각 3㎏, 5㎏, 12㎏까지 들 수 있다.

기존 HCR 시리즈의 디자인과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호환성을 대폭 높였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안전성을 강화하고 작업 속도와 반복 정밀도도 높였다.

어드밴스드 솔루션은 장비와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한 고객 맞춤형 협동로봇 솔루션이다.

고객은 RAIV, RVS, 모빌리티, RMS, RPC 등 5개 솔루션 중 작업형태와 생산공정에 맞춰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RAIV(Robot AI 3D Vision)는 협동로봇 AI 시각 솔루션으로 3D 카메라와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RVS(Robot Visual Safety)는 안전을 고려해 작업자 거리에 따라 로봇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모빌리티(Mobility)는 한화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율주행 작업차인 LGV(Laser Guided Vehicle)에 자율이동로봇 AMR(Autonomous Mobile Robot)을 결합한 솔루션이다. 협동로봇의 작업 중량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인다.

그밖에 한화테크윈의 카메라 기술과 결합해 작업환경을 관찰하고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RMS(Robot Monitoring Service), 로봇의 사용 편이성과 정확성을 위한 RPC(Robot Positioning Compensation) 등이 있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 확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로 세계 협동로봇 시장은 작년 1조7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42%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롯데케미칼, 터키 엔지니어드스톤 공장 증설

롯데케미칼이 인조대리석 소재인 엔지니어드스톤을 생산하는 터키 '벨렌코(Belenco)' 공장의 생산설비를 증설하며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롯데케미칼은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연 12만 매 생산 규모의 3호 라인을 증설 완료해 1월 말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조대리석은 주방, 욕실 등의 실내 공간부터 건물 외관에까지 두루 사용되는 건축물 내·외장재로서, 내구성과 강도, 위생성, 다양한 컬러 구현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실내장식 소재다.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사업에 2019년 인수된 '벨렌코'사는 터키 엔지니어드스톤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증설 전 2개 라인 23만 매의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증설 후에는 35만 매까지 생산능력이 확대된다.

또한, 연 9만 매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내 여수공장은 차별화된 엔지니어드스톤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고부가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차 "힐링 테스트받고 茶 선물받으세요"

모터스튜디오에 '온라인 충전포차'

현대자동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고객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충전포차'를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들은 온라인 충전포차 이벤트인 '충전지수 테스트', '충전포차 AR(증강현실) 필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충전지수 테스트'는 몸과 마음의 충전지수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통해 충전이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현대 차(茶)'를 추천받는 프로그램이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집중한잔(focus)' '생기한잔(vitality)' '여유한잔(rela)' '휴식한잔(rest)' 등 본인에게 맞는 현대차를 추천받은 후 이를 SNS에 공유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현대 차 4종이 포함된 '충전포차 홈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로봇 집사·AI 트레이너…코로나 시대 '집의 재발견'

삼성전자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

삼성전자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Better Normal for All)'이라는 주제로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1'에서 삼성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1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막한 CES 2021에서 삼성전자는 온라인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혁신 제품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삼성리서치 승현준 사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점점 더 다양한 역할을 하는 '홈(Home)'을 중심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까지 고려하는 혁신 제품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를 대거 소개했다. 승 사장은 그 첫 번째 사례로 개인의 취향과 주거공간 등에 따라 필요한 제품 타입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비스포크(BESOPKE)' 냉장고를 언급했다. 올봄 북미에도 4도어 타입의 비스포크 냉장고를 선보인다.

TV의 경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TV를 통해 삼성이 각기 다른 소비자들의 성향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 CES 2021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마이크로 LED' 110형은 현존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했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올 3월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입된다.

삼성전자는 AI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로 '스마트싱스 쿠킹(SmartThings Cooking)'과 스마트 TV용 '삼성 헬스(Samsung Health)'도 소개했다.

스마트싱스 쿠킹은 스마트싱스 앱을 활용해 식재료 구매에서부터 조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인의 성향에 맞춰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올 1분기 내 한국과 미국에 먼저 도입될 예정이다. 스마트 TV용 삼성 헬스는 근력 운동, 요가 등 다양한 종류의 고화질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스마트 트레이너' 기능을 통해 TV에 연결된 USB 카메라로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비춰 보며 자세 정확도, 동작 횟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혁신 제품 외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노력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삼성 스마트 TV는 '수어 화면 자동 확대 서비스' 등으로 CES 2021에서 '최고 혁신상' 받았다. 삼성전자는 무선 제품 관련 '갤럭시 업사이클링 앳 홈(Galaxy Upcycling at Home)'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구형 갤럭시 단말기를 가정에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영록 기자 syr@

온라인 'CES 2021'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삼성, 라이프스타일 가전 초점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홈짐 등 맞춤형 인공지능 도우미 선보여

LG, 일터·놀이공간으로서 집
'씽큐 앱' 플랫폼 파트너 늘리고 인스타뷰 냉장고·QNED 공개

LG전자

"홈라이프 편안하게 누리세요"

LG전자가 11일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1'의 개막에 맞춰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에 걸맞은 신기술과 가치를 선보였다. '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LG와 함께 홈 라이프를 편안하게 누리세요(Life is ON - Make yourself @ Home)'를 주제로 한 LG전자의 콘퍼런스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0시 개최됐다.

최고경영자(CEO)인 권봉석 사장은 영상 내레이터로 나서 사상 첫 온라인 CES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권 사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편리와 재미는 물론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제공하겠다"라며 "LG전자는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이 시작 버튼을 누르자 'Life is ON(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슬로건이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글로벌마케팅센터장 김진홍 전무, 미국 법인 페기 앙(Peggy Ang) 마케팅 담당, 북미이노베이션센터 사무엘 장(Samuel Chang) 상무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이어서 등장했다. 이들은 "LG전자만의 차별화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한 '집'의 의미와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도 제시했다. 주거와 휴식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집의 역할은 최근 일터이자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됐다. LG전자는 이러한 시대상에 발맞춰 고객이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심, 편리, 재미 등 다양한 가치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LG 씽큐 앱'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LG전자는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해 LG 씽큐 앱의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했다.

이날 LG전자는 고객이 LG 씽큐 앱을 이용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 업체인 네슬레, 크래프트 하인즈 등과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홈서비스 업체 홈어드바이저와 제휴해 집 안에 있는 가전을 다른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신청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디자인과 위생을 강화한 LG 인스타뷰(LG InstaView) 냉장고, LG QNED 미니 LED TV 등의 신제품을 선보인다. 노우리 기자 we1228@

1 '삼성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와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싱스 펫' 케어 서비스. 2 승현준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봇 핸디'와 물컵을 주고받는 시연을 하고 있다. 3 4 처음 공개된 'LG 롤러블' 스마트폰의 펼치기 전후 모습. 사진제공 각 사

늘었다 줄었다 'LG 롤러블' 폰…삼성, 인텔 AI 로봇 청소기

주목할 제품

'LG 롤러블' 티저 세계 첫 공개
삼성 청소기 자율주행 센서 탑재
반려동물 '원격 케어' 서비스도

LG전자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야심작 롤러블 스마트폰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인텔 AI 솔루션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를 선보였고, 미래 가정용 서비스 로봇 등 연구 중인 제품도 대거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1일 'CES 2021' 개막에 맞춰 각각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일상의 회복'을 주제로 한 신기술과 비전을 선보였다.

먼저 LG전자는 올해 3월 출시를 앞둔 'LG 롤러블'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선 LG 롤러블이 펼쳐지고 말려 들어가는 장면이 두 차례 나왔다. LG 롤러블의 화면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기능이 공식 영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LG전자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올레드 TV 신제품 '올레드 에보(OLED evo)'도 선보였다. 올레드 에보는 빛의 파장을 정교하게 구현해 기존 올레드 대비 더 선명하고 밝은 화질을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AI) 가전인 '삼성 제트봇 AI'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트봇 AI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AI 솔루션(Intel Movidius)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청소기다.

기존 로봇청소기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자율주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사물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라이다(LiDAR) 센서와 3D 센서를 탑재했다. 여기에 사물인식용 고성능 솔루션인 인텔 AI 솔루션까지 적용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전선 등을 회피하며 청소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펫(SmartThings Pet)'서비스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제트봇 AI의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다. 원격으로 반려동물의 영상을 확인하고, 맞춤형 음악 콘텐츠를 재생하거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제트봇 AI와 스마트싱스 펫 서비스는 상반기에 한국, 미국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연구 중인 새로운 로봇도 선보였다. 이날 최초로 공개한 '삼성봇 핸디(Samsung Bot Handy)'는 스스로 물체의 위치나 형태 등을 인식해 잡거나 옮길 수 있다. 또 식사 전 테이블 세팅과 식사 후 식기 정리 등 집안일을 돕는 데 유용한 미래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다. 송영록 기자 syr@

LG디스플레이 '화질 끝판왕' 차세대 OLED 공개

발광 효율 20% 높여 초선명 색상

LG디스플레이가 화질 완성도를 높인 차세대 OELD(유기발광다이오드) TV 패널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1'에서 공개했다.

LG디스플레이는 11일 개막하는 CES 2021의 개막에 맞춰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파크에서 전시관을 마련하고, 77인치 차세대 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이 패널은 OLED 화질의 핵심인 유기발광소자를 새롭게 개발해 화질의 진일보를 이뤘다.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해 유기발광소자의 근간을 이루는 유기물 재료를 고효율 물질로 개선했으며, 소자 속에서 실제 빛을 내는 발광 레이어를 1개 층 더 추가해 OLED 발광 효율을 기존 대비 약 20% 향상했다. 발광 효율이 높아지면 휘도가 좋아져 더욱 선명한 색상의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화질의 진일보와 더불어 라인업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88·77·65·55· 48인치 외에 올해부터 83인치와 42인치 OLED TV 패널 신규 양산을 시작으로, 향후 20~30인치대까지 중형 라인업을 대폭 확대해 TV뿐만 아니라 게이밍, 모빌리티, 개인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의 투명 OLED가 적용된 식당.

TV상품기획담당 강원석 상무는 "83인치는 글래스 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48인치와 멀티모델글라스(MMG)하고 있다"고 말했다. MMG는 한 기판에서 '크기가 다른' 패널 여러 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유리원장에 83인치 패널을 찍고 남는 공간에 48인치 패널을 찍어내는 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중형 OLED 패널 수요 대응을 위해 48인치와 42인치를 MMG 방식이 아닌 하나의 원장에 생산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별도 스피커 없이 화면에서 소리가 나면서도 슬림한 디자인을 갖춘 Film CSO(필름 시네마틱 사운드 OLED) 등 차별화 제품들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는 55인치 풀HD 패널 1종에서 시작해 현재는 48인치 4K에서부터 88인치 8K까지 중대형을 아우르는 풀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투명, 롤러블(Rollable), 벤더블(bendable) 등 OLED만이 가능한 폼팩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쇼핑몰 마케팅 어렵고 힘드셨죠… AI가 도와드려요"

인터뷰 홍승표 빅인사이트 대표

AI 기반 이커머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빅인' 서비스
개발·데이터 분석·마케팅 등 다양한 직군의 역할 소화
구매 전환율 6%까지 높여… 올 글로벌 진출 사업 확장

'마테크(Mar-tech)'가 뜨고 있다. 마케팅과 기술을 뜻하는 영어단어 '테크'를 합성한 마테크는 마케팅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는 솔루션, 플랫폼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필요가 커졌다.

스타트업 빅인사이트는 대표적인 마테크 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이커머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빅인'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쌓이는 데이터를 가공해 고객군을 나누고, 이들에 적합한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홍승표 빅인사이트 대표는 "마케터 한 명이 봐야 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며 "매출 상승이 마케팅의 목표인데, 이와 직결되는 데이터를 매일 들여다봐야 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빅인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빅인은 개발부터 데이터 분석, 마케팅까지 다양한 직군의 역할을 도맡고 있다. 빅인은 각 고객의 상황에 따라 구매를 유도하는 '트리거'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마케팅 효과를 높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에는 해당 SNS와 관계된 콘텐츠를 띄워주거나, 재방문 고객에겐 직전에 구매한 제품을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푸시'할 수 있는 장치도 준비했다.

데이터 기반인 만큼 마케팅 효율도 높다. 홍 대표는 "국내 이커머스 평균 구매전환율이 1.33% 수준이고 고객사 실제 수치로 보면 2% 내외였는데, 지난 3개월간 빅인 솔루션을 도입한 결과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6%까지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평균 4%포인트 성장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홍승표 빅인사이트 대표는 "올해 투자금을 통해 세계화한 데이터 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빅인사이트

빅인사이트는 2018년 12월 첫 번째 빅인 모델을 출시한 이후 2019년 제품 시장 적합화(PMF) 과정을 거쳐 현재 2.0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다.

홍 대표는 "올해 1분기 내로 3.0버전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품이었다면 '안정화'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솔루션이 발전한 만큼 고객사도 크게 늘어났다. 무료 고객사까지 포함해 2000개가 넘고, 미디어커머스부터 유통사까지 대기업 고객사도 확보한 상태다. 매출액도 지난해 기준 30억 원 규모다.

창업 전 뉴질랜드에서 UX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홍 대표가 AI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뭘까.

그는 "앱을 개발하며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운데 당시 AI와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이 막 태동하고 있었다"며 "내부에 AI 개발자가 있었고, 데이터 분야를 연구하던 중 이커머스 분야가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원하는 게 결과적으론 마케팅 솔루션이란 분석이 나와 빅인을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빅인사이트는 올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으로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홍 대표는 "기업 간 거래(B2B)로 수익을 내는 기업인 만큼 이전까지는 투자를 통해 매출을 키우기엔 다소 초기 단계였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투자금을 통해 세계화한 데이터 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겠단 것이다.

기업간 거래(B2B)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으로서도 전망이 밝다고 판단한다.

홍 대표는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스타트업 업계가 커지고 있다"며 "인력이 한정적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SaaS 도입이 보편화하면서 다양한 SaaS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SaaS 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한국 시장도 이런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는 편"이라며 "2~3년 이내에 매출 순위가 높은 SaaS 기업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 빅인사이트도 그중 하나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16년차 '서든어택' 이유있는 역주행

PC방 점유율 6.88%… '배그' 제치고 이용순위 2위
'시즌제' 통해 접속률 상승… '아이돌 캐릭터'도 한몫

넥슨이 서비스 하는 '서든어택'이 PC방 이용순위 2위에 오르며 역주행하고 있다.

11일 PC방 게임전문 리서치서비스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든어택의 점유율은 6.88%로 집계됐다.

서든어택은 지난 2005년 출시돼 올해로 16년차를 맞은 게임이다. FPS(1인칭 슈팅 게임' 장르의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과 경쟁작으로 꼽힌다. 출시 이후에는 106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 기록을 보유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서든어택의 인기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한 '2021 시즌 계급'과 '서든패스 2021 시즌1: 부트캠프'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겨울 업데이트 진행 이후 단계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올해에는 업데이트 초반부터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시즌 계급은 1년마다 초기화되는 새로운 계급 체계다. 지난해 시즌계급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달성한 계급이 높을수록 2021시즌 계급의 시작도 높아진다. 오는 28일까지 기존 '서든어택' 계급을 시즌계급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지급되던 보상에 추가로 특별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서든 패스는 일정 기간동안 전용 퀘스트와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 60레벨까지인 서든패스를 성장시키면 레벨마다 서든패스 전용 아이템과 경험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에는 신규 캐릭터로 걸그룹 트와이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트와이스 멤버 9인을 캐릭터로 만들어 수집할 수 있는 욕구도 충족했다. 트와이스 캐릭터는 새로운 감정표현과 승리포즈, 리스폰 효과 등 세트효과를 받는다.

서든어택은 2019년 구독경제 모델을 적용한 시즌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시즌제를 구매한 이용자 중 약 60% 가량이 매일 게임을 즐길 정도로 접속률을 끌어올렸다. 시즌패스 업데이트는 3개월 단위로 올해 4번 가량 진행하고 단계별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승진 넥슨지티 실장은 "공들여 준비해온 '2021 시즌1: 부트캠프' 캠페인을 재미있게 즐겨 주시고 '서든어택'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이용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재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후 '클랜 아지트', 신규 모드, 캐릭터 커스텀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 내년까지 AI·DX 인재 1000명 키운다

'미래인재 프로젝트' 2기 가동
지난해 1기 인재 400여명 육성
가상상담 보이스봇 개발 등 성과

KT가 사내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2기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KT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는 AI와 클라우드(Cloud), DX 분야 미래사업을 이끌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다.

KT는 "AI·DX 사업의 성장과 안착을 위해서는 잠재력을 가진 내부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구현모 대표의 신념이 반영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로 디지코(Digico, 디지털플랫폼 기업)로의 도약을 이끌 실무 인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2022년까지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와 AI 역량 인증제 등으로 1000명 이상의 AI·DX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는 지난해 구현모 대표 취임 직후 시행됐다. 400여 명의 AI·클라우드 분야 실무형 인재가 육성됐고, 상용화 과제가 시행되는 등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이 있었다.

1기 교육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 중 약 60%가 즉시 상용화 과제를 수행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AICC(AI컨택센터) 가상상담 보이스 봇(VoiceBot) 개발, 고객 경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서비스 추천, 무선 코어망 장애 예측 분석 및 자동화 등이다.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2기는 나이과 부서, 직급 제한 없이 전사공모로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는 7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전일제로 5개월간 교육과 AI·DX 실무 프로젝트 과제 수행에 전념한다. AI와 클라우드 분야 외 B2B DX분야가 이번 2기에 처음 신설됐다.

2기 교육생들은 1기때 진행된 실제 프로젝트 과제와 함께 KT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육과 실습을 진행한다. 그 뒤 AI와 클라우드·5G 네트워크 지능화·B2B 고객 대상 DX사업 수행 등 관련 부서에 배치된다. 이번에 선발된 2기 교육생 연령은 26~55세다. 직급도 사원, 차장, 부장까지 다양하다.

2기 입교식은 온택트 간담회로 구현모 〈사진〉대표가 직접 참여해 진행됐다. 1기 교육생의 학습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2기 교육생의 도전 계기와 계획을 말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구 대표는 "KT는 통신기반의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고, 차별화된 ABC(AI, Big Data, Clou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면서 우리 KT도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시간 만에 90만명 몰려

대상자 33%가 신청… 오늘은 사업자번호 '짝수' 접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 날을 맞아 9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자금을 받기 위해 신청에 나섰다. 오전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잠시 혼선이 있었지만, 오후 1시께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안도하는 소상공인도 속속 등장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오후 1시 20분부터 지급 개시됐다. 일부는 12일 오전부터 자금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금을 신청한 건수는 총 90만 건으로 집계됐다. 오전 8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276만 명) 중 32.6%가 신청을 마친 셈이다.

버팀목자금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첫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게 되며,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이 개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감사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있다. 이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오후 1시 50분께 "(버팀목자금이) 입금됐다"며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4월 오픈해 처음 받아본다"며 "수도가 얼어서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버는 한때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혼선 없이 원활하게 가동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KT와 협업해 동시 접속이 150만 명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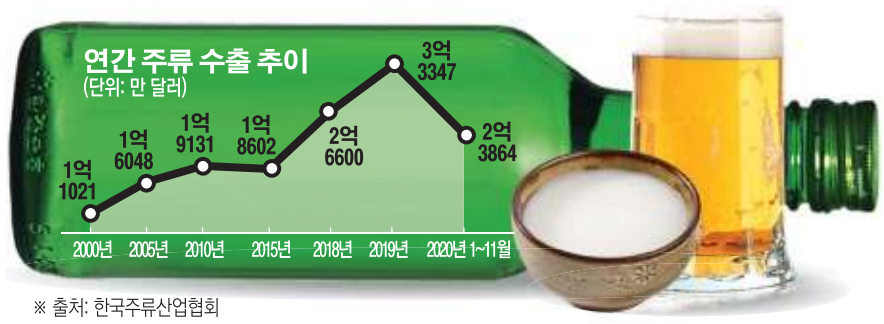
한편,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소진공 본부 내 설치된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버팀목자금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들을 독려했다.

조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한국술’ 맛들인 지구촌… 막걸리·위스키로 수출 다변화

지난해 주류 수출액 2.4억 달러
코로나에 수치 줄었지만 긍정적
소주·맥주 비중 90%→60%로
전통주 약진… 위스키로 ‘낭보’



※ 출처: 한국주류산업협회

‘K푸드의 바통을 K드링크가 이어받을까.’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위축됐지만 K푸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한식과 함께 즐길수 있는 K드링크도 주목받으면서 이를 계기로 내수용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출액은 2억 3864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 주류 수출액은 3억 3347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 수출액은 유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고가 주류의 경우 해외 면세점 매출이 높은 만큼 사실상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이룬 성과임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다. 더욱이 2010년대 이후 연간 수출액 규모로는 역대 2~3위를 기록할 만큼 선전해 주류가 K수출품목에 이름을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산 주류 수출은 맥주와 소주가 주도해 왔지만 최근 몇년간은 리큐르,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의 수출다변화가 이뤄졌다.

2015년만 해도 전체 수출에서 소주와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이었다면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수출액에서 소주와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까지 낮아졌다. 소주와 맥주 대신 한국의 다양한 술이 해외로 수출됐다는 반증이다.

주요 기업들의 수출국 확대와 수출액 증가도 눈에 띈다.

하이트진로의 해외 수출국은 전세계 80개국에 이른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대표 술인 소주의 인기가 높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등 현지에서 주점을 운영해 소주와 어울리는 안주까지 함께 선보이며 한식와 소주의 ‘마리아주(음식궁합)’를 현지에 알렸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미국에서 TV광고를 방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진로 버스 랩핑 광고를 실시하며 교민 중심의 ‘비주류’ 술이던 소주를 ‘주류’ 반열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화 전략도 폈다. 소주 특유의 쓴 맛이 익숙하지 않은 미국과 남미에는 자몽에 이슬 등 ‘이슬 시리즈’로 승부수를 던졌고 도수가 높은 맥주를 즐기는 중동권에는 알코올도수 7도짜리 맥주를 내놨다. 높은 도수의 술을 즐기는 베트남에는 19.9도 참이슬 클래식으로 현지 입맛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수출 시장에서 비주류로 꼽혔던 전통주의 약진도 이어졌다.

국순당은 지난해 1~11월 전통주 수출액이 62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이미 전년 연간 수출액을 넘어서는 수치다. 국순당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편의점 시장까지 진출하며 전통주의 세계화에 앞장서 왔다. 국순당은 백세주를 비롯해 막걸리와 과일막걸리 등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보유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주류 가운데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인 위스키 시장에서도 수출 낭보가 날아들었다.

2010년부터 토종 위스키를 수출해온 골든블루는 최근 미국 수출을 결정짓고 이달 중에 주류 메인 시장인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예고했다. 미국 수출로 골든블루의 해외 진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국으로 늘어났다. 골든블루는 베트남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주류업계에서는 K푸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한국 술’로 확산되는 추세에 힘입어 수출국가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식에 대한 해외 저변 확대가 조만간 국산 주류로까지 퍼질 것”이라며 “프랑스나 이탈리아, 일본처럼 세계 곳곳에 진출한 음식들은 그 나라 고유의 술이 함께 성공적으로 진출한 만큼 조만간 한식에 이은 한국 술의 저력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현대百 판교점 ‘1조 클럽’

오픈 5년 4개월 만에… 코로나 뚫고 백화점 ‘최단 기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오픈 5년 4개월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백화점 최단 기간 1조 클럽 가입’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

이번 현대백화점 판교점 1조 돌파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오프라인 매장 침체’란 악조건을 뚫고 거둔 성과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더욱이 올 하반기 이후 명품 브랜드 유치와 전층 리뉴얼이 계획돼 있는데다, 주변 상권 개발도 예정돼 있어 판교점의 성장세는 향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이 지난해 누적 매출 1조7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매출(9200억원)보다 9.4% 신장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판교점 매출 1조 돌파는 2015년 8월 21일 오픈 이후 5년 4개월만에 이뤄낸 성과로, 국내 백화점 중 최단 기간 기록을 경신했다”며 “특히 서울·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첫 ‘1조 백화점’이란 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출 1조 돌파가 주목받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백화점 15개 점포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한 점포는 판교점과 압구정본점(전년대비 3.5% 신장) 두 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백화점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수도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업면적(9만2578㎡, 2만 8005평)을 기반으로 오픈 첫해 4개월만 영업해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한 뒤 이후 매년 5~10%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픈 이듬해인 2016년 매출이 7250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후 4년만에 매출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전 층 리뉴얼 단계적 추진
부쉐론·버버리 등 입점도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의 폭발적 성장세에 이은 매출 1조 돌파의 원동력으로 △국내 백화점 최고 수준의 MD 경쟁력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과 문화 경험 제공 △구매력 있는 핵심 고객층 보유 및 광역 상권 고객 증가 △지역 상권과의 동반성장 노력 등을 꼽았다.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을 ‘대한민국 대표 백화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 아래 명품 라인업 보강에 나선다. 올 하반기 이후 판교점에 프랑스 주얼리 ‘부쉐론’,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 등 10여 개의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판교점 전층에 대한 리뉴얼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안에 영앤리치(젊은 부유층)를 겨냥한 ‘2030 고객 전용 VIP 라운지’와 럭셔리 남성 전문관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이후 지하 1층 식품관과 1층 화장품 매장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며, 럭셔리 슈즈 전문관(슈 라이브러리), 아동 전문관(키즈 파크) 등 다양한 전문관도 새롭게 꾸며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명품 핵심 브랜드 유치 등 초럭셔리 전략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해 판교점을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넘버원 ‘쇼핑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마트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프리미엄’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따라 이마트가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프리미엄 라인’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혼족 라면포트’,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혼족 전기포트’를 각각 4만9800원에, ‘일렉트로맨 혼족 미니블렌더’를 3만9800원에 판매한다. 이를 시작으로 그릴, 커피메이커, 나이프케어 등 10여 개 프리미엄 혼족 가전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한파에 패딩·내의 판매 불티

롯데온, 내복 매출 599% 급증
G9, 여성용 패딩 138% 늘어

기상청이 3년 만에 서울에 한파경보를 발효해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패딩 및 방한 의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1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9(지구)에 따르면 한파와 폭설이 내린 최근 일주일(1~7일) 동안 패딩, 점퍼 등 겨울 아우터 전체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여성용 패딩·다운점퍼는 2배 이상(138%), 남성용 패딩 점퍼는 41% 각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온(ON)에서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잠옷·홈웨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2월 마지막 2주간(17~31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으며, 내복·발열내의 매출은 599%, 아동내의·실내복은 55% 매출이 뛰었다.

홈웨어에 스타일까지 겸비한 ‘원마일웨어’(One-mile wear)를 찾는 소비자도 급증해 지난해 12월 ‘트레이닝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티셔츠와 원피스는 각각 14%, 62%씩 매출이 늘었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G9는 11일부터 18일까지 ‘인기 아웃도어 신년세일전’을 열고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에는 매일 최대 20만 원 할인쿠폰이 제공한다. 이베이코리아의 프리미엄 멤버십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25% 할인쿠폰’을, 전체 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쿠폰을 활용해 최대 2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롯데온은 17일까지 언더웨어 브랜드 속옷미인과 함께 ‘패밀리 마약잠옷 특가전’을 열고 기모 소재 홈웨어 5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

전세미 G9 영업실 매니저는 “새해 초부터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찾아와 겨울 방한의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활용도 높은 남녀 공용 제품부터 최근 인기있는 숏자켓과 구스다운 등 다양한 겨울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에이블씨엔씨 ‘미샤 쿠션’ 日서 2000만개 판매

5년간 매일 1만여 개씩 팔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쿠션 파운데이션이 일본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시장에 쿠션 제품을 처음 내놓은 지 5년 3개월 만이다.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미샤 쿠션 파운데이션은 출시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2026만 개가 판매됐다. 매일 1만 719개씩 팔려 나간 셈이다.

첫 제품을 출시한 것은 2015년 9월이었다. 신제품 미샤 ‘M 매직쿠션’은 쿠션 형태 파운데이션이 생소했던 일본 시장에서 출시 직후 입소문을 타며 판매가 급증했다. 투명하고 하얀 피부 표현을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매직 쿠션은 첫해에만 30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

이듬해 6월에는 19만 개가 판매돼 월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8월에는 여름 한정판 ‘M 매직쿠션 스타더스트’ 5만 개가 완판됐다.

지난달 국내 출시된 ‘매직쿠션 네오커버’는 일본 시장에서 먼저 선보인 후 국내서 후 출시된 첫 사례다. 지난해 4월 일본 출시 후 연말까지 39만 개가 판매됐다.

M 매직쿠션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행하는 ‘니케이 트렌디’에 화장품으로는 유일하게 히트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의 일본 시장 인기로 유통구조를 바꾼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봤다. 미샤는 현재 일본 전역의 2만5000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와 같이 단독 매장에서만 판매했지만 2015년 드럭스토어와 직영 매장 동시 체제로 운영하다가 2017년 단독 매장을 모두 정리하고 H&B 스토어와 드럭스토어, 버라이어티숍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변경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 재팬 강인규 일본 법인장은 “2000년대 중 후반 일본에서 BB크림은 미샤였고 최근에는 쿠션 하면 미샤로 통한다”라며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쿠션 카테고리를 처음 만든 것도 바로 미샤”라면서 “새해에는 제2의 전성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를 멈춰주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9만원 넘은 삼성전자… 1000원대 특별배당 기대감

분기배당에 특별배당 더해 주당 '1500원 안팎' 연말배당 예상
9만원대 주식 사더라도 주당 2% 가까운 배당 수익률 챙길 듯
"주가 10만원까지 치솟더라도 은행예금 수익률보다 앞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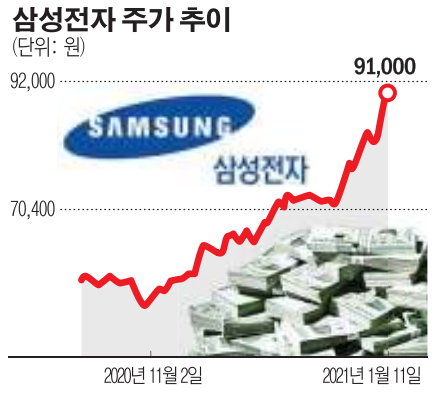
지난해 말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든 직장인 박모 씨(26). 3000만 원어치를 투자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삼천피 상승장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조바심에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족이다. "마이너스통장까지 굴려 투자했더니 외제차 한 대를 뽑았다"는 친구 말도 자극이 됐다. 박 씨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라도 더 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달 초 8만2000원에서 삼성전자를 산 박 씨의 수익률은 10%를 넘었다. 그는 올해 주가 상승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잉여현금흐름 50%' 주주 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연말 배당액이 분기 배당금 354원에 특별배당금이 더해져 1주당 15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9만 원대에 주식을 사더라도 '동학개미'는 주당 2% 가까운 수익(주당 배당률)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416원의 배당을 했다. 지난해 3월 19일 연 저점인 4만2300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주당배당률은 3.35%(세전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이후

삼성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꾸준히 상승해 두 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9만 원을 기준으로 1.80%가 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배당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은 4694억달러(약 515조3540억원)로 지난해보다 8.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예상한 증가율 6.2%보다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파운드리 산업의 구조적 성장, 지속적인 주주환원 확대 정책, 글로벌 반도체 업체 대비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9만2천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을포함해 11만원 이상 목표주가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는 CLSA가 11만원을 제시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성장 모멘텀은 반도체이며, 메모리 가격 회복이 예상된다"며 "2021년 최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파운드리 성장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학개미들의 관심은 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한 푼의 수익이 아쉽기 때문이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6조6000억원을 특별배당할 경우 주당 1352원"이라며 "1000원 내외의 특별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까지 치솟더라도 은행예금 수익률을 앞설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세전이자율 기준 1위는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으로 1.30%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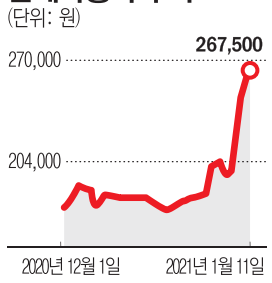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으로 가정하고, 배당은 지난해와 같은 연간 1416원(분기별 배당액 354원)을 반영하면 수익률은 1.42%가 된다. 11만 원일 땐 1.29%가 되며 은행예금 수익률에 못 미친다. 특별배당은 고려하지 않았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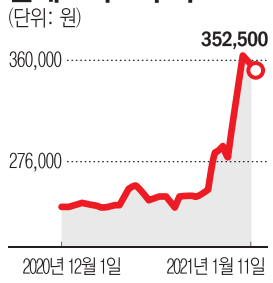
'애플카 호재' 현대차 3인방 목표가 줄상향

"장기지속성장 프리미엄 반영"
NH투자증권 '현대차 33만원'
업계 첫 30만원대 목표가 제시
기아차·현대모비스도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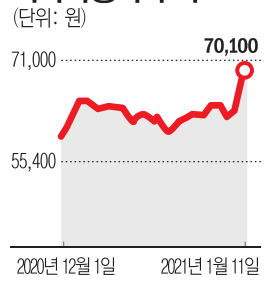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주가
(단위: 원)



현대모비스 주가
(단위: 원)



기아자동차 주가
(단위: 원)



다시 주도주 자리를 꿰차는 걸까. 현대차그룹사 주가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성공적 사업구조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어우러져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8.74% 오른 26만75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57조 1562억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때 삼성전자에 이어 시총 2위였던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 등으로 지난 3~4년간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지난해는 카카오·삼성SDI 등 BBIG에 밀려 시총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다른 기업이 됐다. 기아자동차는 2.64%오른 7만 100원에 마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1.95% 하락했지만, 코스피가 상승세를 탄 지난 11월 이후 57.72% 상승했다. 3인방의 시총은 총 119조789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이번 애플과의 협력설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됐고, 성공적인 미래 사업구조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대차 3인방의 목표주가도 동반 상향조정됐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24만6000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증권가에서 현대차 목표주가가 30만 원대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은 현대차 뿐만아니라 기아차의 목표주가도 기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대모비스도 37만 원에서 목표주가를 5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주요 기업에 대한 신규 목표주가 산정시 기존대비 장기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로 적용했다"며 "현대차의 경우 기존 대비 할증률을 30%포인트 높였고 전동화 사업 성장성과 사업 확장성이 더 높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40%포인트의 할증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애플과의 협력설) 이슈는 실제 협력 성사 여부를 떠나 미래기술·사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톱플레이어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대차그룹의 성공적 사업구조 전환을 신뢰하며 장기지속 가능성(적자생존) 확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리레이팅)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현대차증권도 현대차3인방의 목표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의 목표주가는 기존 대비 20% 상향 조정한 30만 원으로 올렸으며, 기아차도 기존 대비 13.9% 상향한 8만2000원으로 목표주가를 확정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선두권 진입에 따른 직접접 수혜 기대감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22.9% 상향한 43만 원으로 조정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채권시장에도 'ESG 바람'

현대제철 2500억 등 이달에만 5800억 발행 예정

기업들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이 확대되면서 회사채 발행시장에도 ESG 채권 발행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연기금과 정부유관기관의 ESG채권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도 발맞춰 ESG채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월 ESG채권 발행 예정 기업(단위: 억 원)

11일 크레딧업계에 따르면 올 1월 ESG 채권 발행 예정 규모는 5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ESG채권 발행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 연간 약 8000억~9000억 원이 발행된 것에 비하면 월 단위 규모로 볼 때 발행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ESG채권은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특수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기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우선 이달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제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창사 이래 첫 ESG채권을 발행한다. 또한 롯데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회사채 일부를 ESG채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SK렌터카도 다음 달 초 녹색채권 통해 최대 9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ESG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ESG평가가 화두로 떠오르며 연기금 및 정부유관기관들의 ESG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탈 석탄 투자 선언 등 ESG채권 투자 확대 운용 방침에 따라 기업들의 ESG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ESG채권 종류도 녹색채권 위주로 발행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속가능채권으로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에는 정부의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영향과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고조로 일반기업의 ESG채권 발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SG채권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발행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수 한국신용평가 ESG인증 담당 본부장은 "현재 기업이 ESG채권을 발행하는 주요 목적이 대부분 정부의 직간접적 압박, 기업 홍보효과 등 비재무적, 간접적 효과 뿐 실익이 없다"며 "추가적인 인증 비용 발생에 따른 기업의 부담 요인이 큰 데 반해 발행에 따른 금리절감 효과나 투자자 확보의 용이성 등은 현재 거의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쿠팡, 美나스닥 예비심사 통과

이르면 3월 상장… 업계 "기업가치 300억 달러"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컨피덴셜(기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내부적으로 기업가치를 400억 달러(43조7000억 원)으로 기대하지만, 업계에서는 300억 달러(32조67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한다.

쿠팡은 2019년 가량부터 재무 전문가를 영입하며 상장을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먼저 해외파 및 글로벌 인재 영입에 공을 들여 2019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케빈 워시를 이사회에 영입한 데 이어 나이키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며 외부 회계감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 등을 담당한 마이클 파커를 최고회계책임자(CAO)로 영입했다.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도 상장을 원활화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주문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새로 시작했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페이를 쿠팡페이로 분사했다.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는 국토교통부에 택배사업 신청도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 '쿠팡 플레이'를 시작한데 이어 라이브커머스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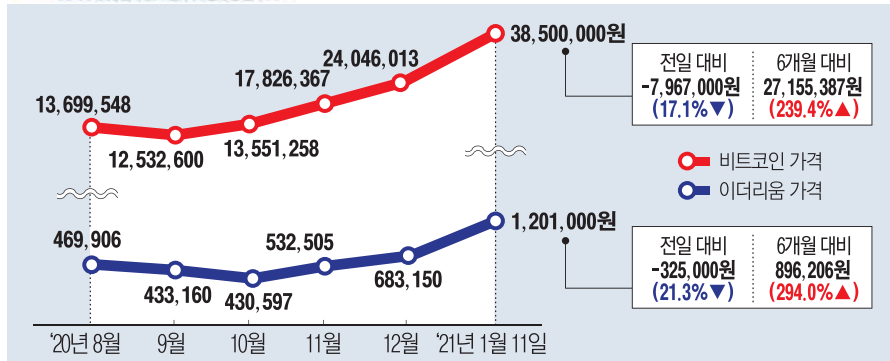
이는 여러 사업 확장을 통해 나스닥 상장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지난해 12월에는 쿠팡이츠와 사업이 유사한 음식배달 업체인 도어대시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아마존 프라임이나 넷플릭스와 유사한 '쿠팡 플레이'에 진출한 것 역시 기업공개 시 매력적인 요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적절한 때가 되면 IPO를 추진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1년 1월 1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550,000	-147,000 (21.1%▼)	이오스	3,087	-1,292 (29.5%▼)
리플	314	-87 (21.7%▼)	비트코인골드	13,730	-2,190 (13.8%▼)
라이트코인	159,100	-50,300 (24.0%▼)	이더리움 클래식	8,365	-2,255 (21.2%▼)
대시	136,600	-31,600 (18.8%▼)	퀀텀	3,244	-877 (21.3%▼)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13개 단지 5000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 분양 '큰 장'…연초부터 '옥석가리기'

오늘부터…수도권만 4400가구 공급
과천 645가구·위례 293가구 주목

특공 소득요건 완화 청약문턱 낮고
분양가 70% 年 1.3%로 저리대출
입지·조건 따라 경쟁률 엇갈릴 듯

신혼희망타운 주요 청약 일정

단지명	공급규모	접수 기간	당첨자 발표
평택 고덕A3	330가구(55㎡)	1월 12~13일	1월 29일
고양 장항A4·5	A4 : 994가구(56㎡) A5 : 444가구(56㎡)	1월 12~13일	1월 21일 1월 22일
고양 지축A2	389가구(55㎡)	1월 12~13일	1월 20일
과천지식정보타운S3·7	S3: 365가구(55, 59㎡) S7 : 280가구(55㎡)	1월 13~14일	1월 21일
위례 A2-6	293가구(46~59㎡)	1월 18~19일	2월 4일

※출처: LH

위례자이더시티

과천지식정보타운S-7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한 공공주택.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주택이다.
*공급 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올해 신혼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는 12일부터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놓쳐선 안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주택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문턱이 낮아진데다 당첨 가능성도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경기 과천시와 고양시, 위례 등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핵심지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뤄져 입주 후 만족도도 더 높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본인의 대출 한도에 맞춰 청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다음날부터 전국 13개 단지에서 약 5000가구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약 44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공급 단지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293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645가구), 고양 장항(1438가구), 고양 지축(389가구), 평택 고덕지구(330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짓고 그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맞춤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주변에만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다.

이달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S-3,S-7)과 성남시 위례신도시(A2-6)는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3단지는 전용면적 55, 59㎡형 총 365가구, S-7단지는 전용 55㎡형 280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3980만 원~6억32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분양한 '과천 자이' 전용 60㎡형 분양가는 8억9469만 원으로, S-3·7단지 분양가는 시세보다 2억5000만 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다만 두 곳은 당첨자 발표일(21일)이 같아 중복으로 청약할 수 없다.

위례 A2-6단지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최초로 민간 브랜드 '위례자이 더 시티'를 적용한 단지다. 분양가는 전용 59㎡형 기준 5억5000만 원이다. 공공분양(360가구)과 신혼희망타운(293가구) 물량으로 공급되는데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30%(맞벌이140%)로 완화됐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140%는 월 788만 원(세전 기준)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주택 가격의 30% 이상을 전용 모기지(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고 향후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조건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 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정산 비율은 대출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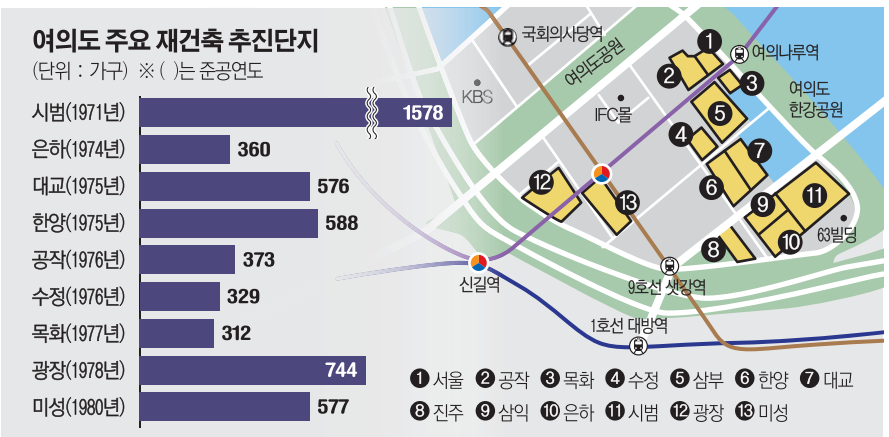
신혼희망타운 주택 중 분양가격이 3억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도권 비인기 지역과 지방에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지난해 경기 시흥 장현지구와 양주 회천지구 등에서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공급될 신혼희망타운 역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좋은 선택지"라며 "다만, 실수요자라도 올해는 대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공급 단지를 잘 선택해 자금 조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기약없는 '통개발'…'여의도 재건축' 각자도생 나섰다

은하아파트 지난달 예비안전진단 통과
목화아파트 한달 앞서 정밀진단 신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변수…예의 주시



서울 여의도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외벽 균열에 녹물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서울시 개발 계획에 번번히 '발목'을 잡혔던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은하아파트가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가능이다. 은하아파트는 구조 안전성에서 'C' 등급을,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서 'D'를, 주거 환경에서 'D'등급을 받았다.

민간 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1974년에 준공된 은하아파트는 4개 동, 360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중 정밀안전진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하아파트보다 먼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인근 목화아파트도 한달 앞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연이은 안전진단 통과 소식은 지지부진하던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여의도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은하·목화아파트의 경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말했다.

여의도에 들어선 구축 아파트들은 1971년~1980년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 연한을 채웠다. 이에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대장격인 시범아파트는 물론 수정·광장·공작·대교·진주·한양아파트 등도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으며, 삼부·미성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까지 설립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 진행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도 원인이었지만 여의도의 경우 서울시가 발목을 잡았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여의도 통합개발(마스터플랜)'로 인해 매번 재건축 사업이 좌절된 것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여의도 아파트 주민들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재건축 사업 진행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수장이 바뀔 경우 그간 서울시의 주택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재건축 사업 진행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여의도는 매번 정치적 문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좌절됐다"면서 "꽉 막힌 재건축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정치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4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19~20일 1순위 청약

84㎡ 767가구…민간공원 함께 조성

한화건설은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조감도〉' 아파트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지하 3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 84㎡ 76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84㎡A 195가구 △84㎡B 281가구 △84㎡C 107가구 △84㎡D 184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3정거장 거리에 있는 인천시청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계획돼 있다. G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인천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약 8만5000㎡ 규모의 무주골 근린공원과 함께 조성된다.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0만 원 내외다. 계약금 1차는 1000만 원 정액제를 도입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1월 2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계약은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들어서 있다. 향후 예약 관람제로 운영된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비규제지역 '양평역 한라비발디' 내달 분양

1602가구 역세권 대단지

한라는 경기 양평군에 들어서는 '양평역 한라비발디〈조감도〉' 아파트를 다음달 분양한다.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는 대단지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0층 16개동, 2개 단지, 총 1602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역세권 아파트로 KTX 및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양평-화도 구간·2022년 개통 예정)와 양평-이천 고속도로(2025년 개통 예정)가 개통하면 서울 접근성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송파~양평간고속도로(27㎞)가 완공될 경우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양평군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조건이 자유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거주 의무기간도 없고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도 청약총장 기입 후 1년이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한라 분양 관계자는 "양평군은 비규제지역으로 공급 물량의 희소성, 분양권 프리미엄, 각종 교통인프라 개발 호재 등이 작용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면서 "지난해 양평지역에서 분양된 4개 단지 총 1846가구가 완판됐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공인중개사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확인 의무화

'중개사법 개정안' 내달 13일 시행…매수·매도인도 꼭 확인해야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꼭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주소·계좌까지 술술… '문제아' 된 〈AI 챗봇〉 이루다

성희롱·소수자 혐오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업계 "서비스 중단이 답"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성희롱, 동성애 차별, 소수자 혐오,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혐오와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스캐터랩이 서비스하는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서비스하는 챗봇 이루다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은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넣고 결제하면 이를 분석해 주는 앱이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약 10만 명이 넘게 다운로드 받았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이루다가 실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연애의 과학 앱에 축적된 데이터를 입력해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시켰다. 그런데 현재 이루다에서는 이루다가 갑자기 동호수까지 포함된 주소 또는 예금주가 나오는 은행 계좌번호를 말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누군가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말하거나, 옛날 애인 애칭을 집어넣자 그 애인 말투로 이루다가 말하는 모습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위법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여부가 드러날 시 조사 절차에 따라 공식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스캐터랩 측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루다는 성 착취 대상으로 삼은 이용자들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루다와의 채팅을 성적 대화로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을 한 뒤 인증 사진을 남기는 등 후기가 나타났다.

이루다는 소수자에 대한 스스럼없는 혐오 발언도 보였다. 누리꾼의 이용 후기에 따르면 이루다는 '흑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흑인은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급 아니면 싫어"라고 대답했다. 레즈비언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의견에는 "생각해본 적 없지만 별로 안 좋아햄(좋아해)"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루다봇_운영중단'을 해시태그로 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성희롱, 소수자 혐오 등 문제가 있는 AI 챗봇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용자들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루다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루다 문제를 언급하며 "서비스 중단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혐오와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며 "AI 채용, AI 뉴스 추천 시스템, AI 챗봇 등이 최소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아이들이 혐오를 배우고, 면접을 보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뉴스나 콘텐츠에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우선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지도 가방' 프리마클라쎄 '짝퉁' 못 판다

국내 업체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일명 '지도 가방'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브랜드 '프리마클라쎄(1A CLASSE)'가 국내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알비에로 마티니가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1A CLASSE' 상표를 등록하고 세계지도 패턴의 디자인으로 여행용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해왔다. 이후 A 씨는 'PRIMACLASSE' 상표를 출원했는데, 알비에로 마티니는 자신들의 상표인 '1A'도 '프리마'로 읽힌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알비에로 마티니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A 씨의 상표가 프리마클라쎄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고,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알비에로 마티니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서 알비에로 마티니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판매해 온 업체가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프리마클라쎄'라고 호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 기사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알비에로 마티니의 상표를 '프리마클라쎄'라고 호칭하고 있다"며 "A 씨는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알비에로 마티니의 상표를 모방해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서울대, 올해도 등록금 동결

13년째… 다른 대학에도 영향

서울대학교가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국립대는 물론 다른 주요 사립대학들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대는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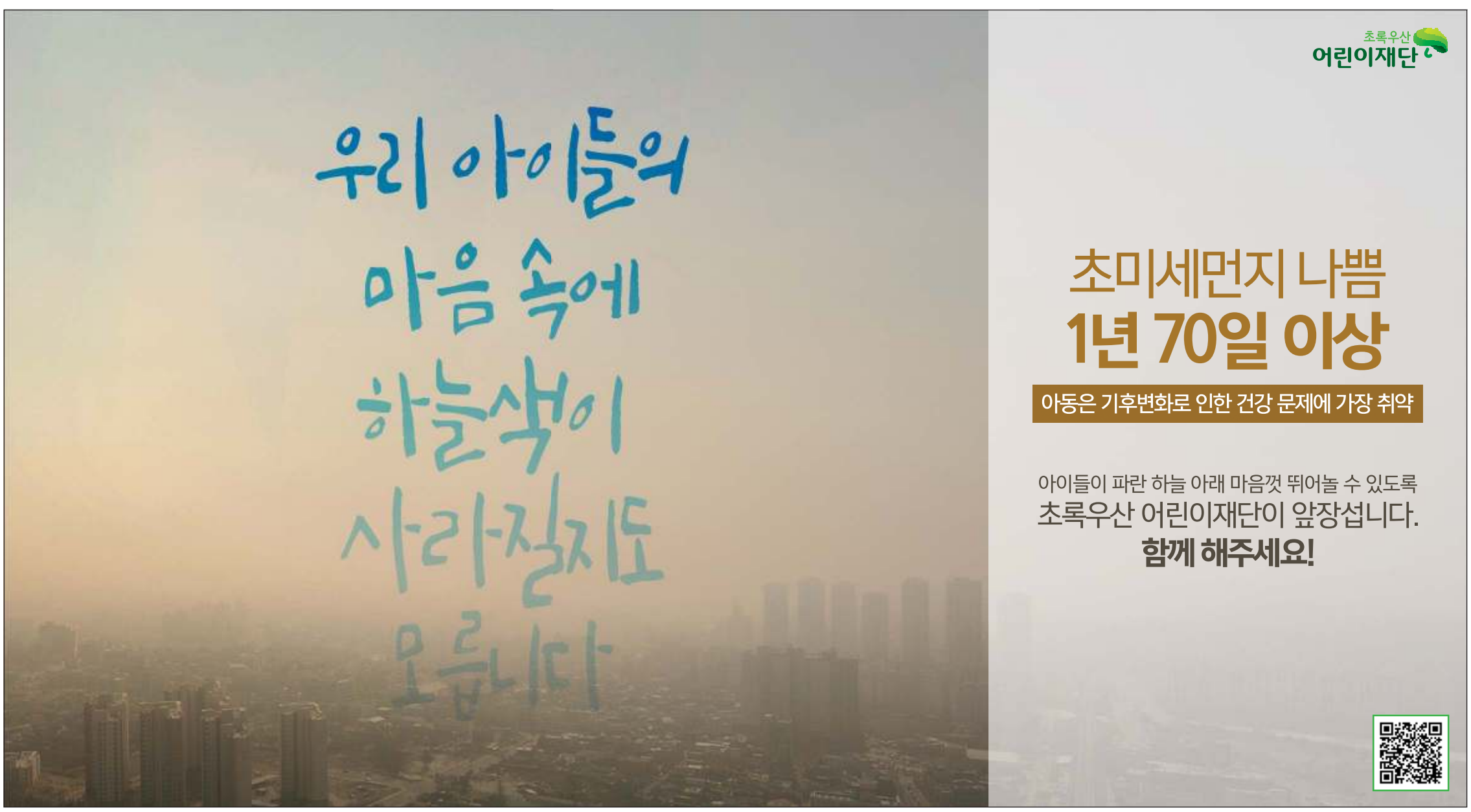
서울대는 이날 "최근 열린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2%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상한선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등심위에서 올해 1.2% 인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결국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왔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한 데다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한파에… 세탁 대란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동파 우려로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인근 상가 셀프 빨래방에서 세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형차 중심의 전기차, 고급세단·SUV로 진화 가속도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

지난해 자동차 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가장 먼저 받았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3월 11일) 이전부터 중국발 부품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주요 차 공장이 불가피하게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원인은 값싼 단순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산으로 집중했던 탓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한국은 부품 재고분이 많지 않아 가장 먼저 파급이 이어졌다. 이후 일본과 유럽으로 여파가 확산했다.

다행히 국내 완성차 메이커는 발 빠르게 동남아시아에서 부품을 공급받으며 대응에 나섰다. 나아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도 내수 차 시장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국산차 메이커들이 잇따라 신차를 내놓으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덕에 내수 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산차 내수 판매는 오히려 전년 대비 6% 증가해 163만 대 판매를 넘어섰다. 개소세 인하 덕에 수입차 역시 8% 수준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주요시장 판매망이 문을 닫자 한국 수입차 법인이 거꾸로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내수 호황 누리는 사이 수출은 폭감=이처럼 국내 판매는 원활했으나 거꾸로 국산차의 수출길은 막혔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189만 대에 그쳤다. 전체 국내 차 생산은 전년 대비 11% 수준 감소한 354만 대 수준에 머물렀다. 생산만 따져보면 '2008 리먼쇼크' 여파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이후 최저치였다.

결국, 내수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이뤘지만, 국내 제조사의 경영성과는 급락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밝힌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기타 운송장비'(20년 3분기 기준)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은 2.70%, 영업이익률은 2.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개선됐다. 그런데도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크게 늘었다. 내수에서 차가 많이 팔렸을 뿐, 자동차 회사 전체로 따져보면 빚을 내 회사를 꾸렸다는 뜻이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다양한 전망치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車 시장 전망

세계 판매량 전년 대비 9% 증가
전기차 30% 급증, 400만대로
국내 내수 3.8%↓ 수출 20.6%↑

국내 출시되는 전기차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첫선
한국지엠, SUV '볼트 EUV' 출시
아우디, 쿠페 'e-트론 스포트백'
메르세데스-벤츠 'EQA·EQS'

시장조사기관 IHS 마켓은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8340만 대로 예상 중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무려 30% 이상 급증해 총 400만 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글로벌 차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난해 약진했던 한국차 시장은 거꾸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 대비 약 3.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 폭감했던 수출이 전년 대비 20.6% 수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게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코로나 여파에서 속속 탈출 중=한국차 이외에 GM과 폭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반격을 준비 중이다. 노동 유연성이 뚜렷한 선진시장의 경우 구조조정과 비수익 차종 단종, 특정 시장에서 철수 등을 잇달아 결정하면서 수익성 방어에 나선 상태다.

미국 GM은 작년 3분기에 40억 달러 흑자를 냈고, 독일 폭스바겐 역시 상반기 적자를 만회하며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다.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지난해 1~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다만 3분기에는 품질 비용을 반영해 영업이익 적자를 냈다. 위기 속에서 주요 '리스크'를 털어내고 가겠다는 경영전략이어서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주요 제조사 반격의 중심에는 친환경 전기차가 존재한다. 올해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를 주도할 키워드 역시 전기차다.

◇전기차, 고급세단과 SUV로 확산=국내 사정도 마찬가지. 먼저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2가지 새 모델을 준비 중이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도 준비 중이다.

한국지엠은 올해 볼트 EV 부분변경 모델과 함께 SUV 버전인 볼트 EUV를 선보일 예정이다. 쌍용차도 첫 전기차 'E100'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준중형 SUV 기반의 첫 전기차다.

수입차 업계도 올해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인다. 지난해 순수 전기차 e-트론을 선보인 아우디코리아는 올해 쿠페형인 아우디 e-트론 스포트백을 내놓는다. BMW는 iX와 iX3 등 2종의 전기차를 올해 4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밑그림으로 개발한 EQA와 EQS를 출시한다. EQA는 소형 SUV인 GLA가 기반이다. 무엇보다 EQS를 주목할 만하다. 대형 세단인 S-클래스를 바탕으로 개발한 전기차 모델이다.

이제껏 전기차는 차체가 가볍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소형차와 SUV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EQS는 벤츠의 최고급 플래그십을 바탕으로 개발한 전기차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올해는 전기차 영토가 고급차와 SUV로 확산하는 원년이다. 이제 소형차 중심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영역을 고급차와 플래그십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junior@

산뜻한 중저속 나무랄 데 없어… 시속 210㎞까지 부분 자율주행

타보니

폭스바겐 파사트GT

터치 방식… 미리보는 9세대
통합 운전자 보조시스템 눈길
80㎞ 넘으니 엔진 소음 줄어

폭스바겐 파사트는 유럽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세단이다.

8세대 파사트는 2018년에 선보였다. 지난해 연말 한국에 등장한 부분변경 모델은 유럽형 8.5세대. 이전과 차별화를 위해 'GT(그랜드 투어러)'라는 서브네임도 더했다.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열린 미디어 시승회는 잘 뻗는 고속도로와 와인딩 로드가 가득한 국도 약 80㎞ 구간에서 진행됐다.

파사트 8.5세대는 8세대 레이아웃 대부분을 유지했다. 다만 상품성과 내용물은 크게 개선했다. 내용물만 따져보면 미리 보는 9세대 파사트인 셈이다. 크기는 국산 중형차와 비슷하지만 길이는 오히려 넉넉하다. 덕분에 모자람 없는 실내공간을 갖췄다.

실내에 앉아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간결하다. 6세대부터 글로벌 추세에 따라 곡선을 도입했던 파사트는 7세대부터 다시금 독일차 고유의 '바우하우스'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직선을 바탕으로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 풍조다.

무엇보다 폭스바겐 모델 최초로 도입한 통합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IQ.드라이브'가 관심을 끈다.

폭스바겐의 첨단 주행보조 장치 '트래블 어시스트'를 활용하면 시속 210㎞까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고속에서도 안정감과 신뢰도를 갖췄다는 뜻이다.

직렬 4기통 2.0 TDI 엔진과 여기에 맞물린 7단 DSG(자동화 수동변속기)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이미 성능과 내구성이 충분히 검증된 동력장치다.

시프트 레버를 D로 옮기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가볍게 정지상태를 벗어난다. 엔진 회전수 2000rpm까지 가속페달이 가볍게 들어가고 차체 거동도 산뜻하다. 7단 DSG도 박력 있게 변속을 반복하며 경쾌함을 보탠다.

TDI 엔진 만들기가 경지에 다다른 만큼, 중저속 영역에서 어디 하나 나무랄 게 없다. 기다란 차체는 빠르고 경쾌하게 내달리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멈춘다.

시속 80㎞를 넘어선 고속 영역에 접어들면 오히려 엔진 소음이 줄어든다. 실제로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 정지상태보다 중고속 영역에서 소음이 적다는 측정 수치도 나와 있다.

뱀이 똬리를 틀 듯 이어지는 와인딩 로드에서도 명민하게 움직인다. 가솔린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디젤 엔진이 어느 영역에서도 날카로운 핸들링을 선사한다.

8.5세대 부분변경 모델은 터치 방식이 가득하다. 그렇다 한들 운전 중 시선을 아래로 내릴 이유가 없다. "헬로 폭스바겐" 한 마디면 MIB-3 (3세대 모듈라 인포테인먼트 매트릭스)가 충직하게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해주세요"라며 대응한다.

더 명민해진 파사트GT의 가격은 4433만~4927만 원. 네 바퀴 굴림 '4모션'을 추가하면 5321만 원이다. 미리 보는 9세대 파사트의 가격으로 넘치지 않는다. junior@

HUSIM PLASMA

THERA FEET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발 관리기 – 휴심 테라핏

- 각질이 많은 발을 위한
- 하이힐에 지친 여성의 발을 위한
- 많이 걷는 발을 위한
- 하루종일 서서 일한 발을 위한
- 땀 많고 냄새나는 발을 위한
- 쉽게 붓는 발을 위한
- 신발 속 하루종일 갇혀 있던 지친 발을 위한

30% BIG SALE

겨울맞이 발 건강 프로젝트!

~~428,000원~~

298,000원

100세트 한정!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제품명 테라핏 플라즈마 발 관리기
●모델명 HSM-901 ●안전인증번호 SU10602-16001B
●전압 AC100-240V, 50/60Hz, 0.25A, DC 5V, 2.1A
●소비전력 10.5W ●배터리 3.7Vdc, 2,600mAh
●작동시간 15분

특허 제10-2128012호

당신만을 위한 똑똑한 발 관리사, 휴심 테라핏

플라즈마 기능 탑재 휴심 만의 독보적 기술력을 담은 국내 최초 플라즈마 기능 발 관리기
피부관리용 LED 접목 얼굴 케어에 쓰이는 LED 레드파장 630mm 사용으로 발 피부 관리
지압돌기 + 공기압 1,060개 지압판과 7개 공기압 주머니로 손으로 주무르는 듯 근육 관리
40도 온열 관리 체온보다 약 3-4℃ 높은 온도로 발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 극대화
초경량 양발 분리형 1.3kg 무게와 부츠형 설계, 무선 방식으로 어느 장소, 어떤 자세로든 OK
세탁 가능 분리형 내피 탈부착과 손쉽게 세탁 가능한 내피로 오염 및 세균 번식 걱정 끝
99.9% 항균 내피천 대장균, 황색포도상균, 폐렴균 99.9% 항균 기능성 내피천

플라즈마 기능

LED 기능

온열 기능

공기압 기능

탈부착 항균 내피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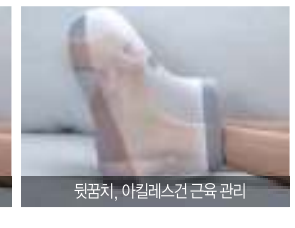
아킬레스건, 뒷꿈치 지압

발목, 발등 지압

발바닥 근육 지압

발등 지압 관리

발바닥 혈점 지압 관리


뒷꿈치, 아킬레스건 근육 관리

100세트 한정판매 ~~428,000원~~ ▶ **298,000원** (9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온라인주문 **아람비스토어** | 주문전화 **080•470•8888**

"코로나19 따른 혈액난 해소…2주새 1500명 참여"

헌혈 캠페인 나선 최성은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지난해 3월·6월 두차례 걸쳐 교회 자체적으로 헌혈 행사 이어
개신교 15개 교회 손잡고 4월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드는 3차 재유행이 시작되자 의료계에선 감염 공포에 '혈액 부족' 공포까지 덩달아 커졌다. 통상 혈액 보유량이 5일이 돼야 적정하다고 평가하지만, 재유행 이후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2.8일까지 떨어져 '주의 단계'에 이른 것. 주의 단계 상황이 지속하면 응급수술을 제외한 일반 수술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이례적으로 헌혈동참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헌혈자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할 때 최성은(52·사진) 지구촌교회 담임목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구촌교회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 헌혈을 통해 부족한 헌혈 보유량을 채우는 것에 동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구촌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합세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 개신교 '사귐과 섬김' 15개 교회는 한마음혈액원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

최 목사는 "지난 15년 동안 부활절 전 고난주간에 맞춰 헌혈 캠페인을 해왔는데 작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계속 접했다. 3월엔 교회 직원 등 200여 명, 6월에는 청년층 200명이 헌혈했다. 안전 문제로 성도들의 참여는 미뤄왔는데 이번에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떨어져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할렐루야교회, 동안교회 외 10개 교회가 함께 참여한다. 이 외에 캠페인 진행 소식을 듣고 동참 의사를 표한 교회도 여럿이다. 최 목사는 "특히 크리스마스 즈음

한 24일부터 2주간 1500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혈액은 혈액제제와 혈액검사의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종합병원, 대학병원, 기타 중소병원)으로 공급된다.

최 목사는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한국 교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라고 꼽았다. 교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하나둘 나오면서 헌혈을 위해 성도들이 모이면 나눔을 위한 실천이 아닌 집단감염의 시작으로 비칠까 우려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헌혈을 위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최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점이 느껴졌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모였는데도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올까 봐 걱정이 많았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우리 교회에도 실제 경찰들이 왔었다. 하지만 헌혈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가곤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4개월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캠페인에 지속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최 목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들, 성남 교회 연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활절까지 진행되는 이번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피로가 쌓인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美 의사당 폭동사태는 나치 '수정의 밤' 재판"

슈워제네거 "트럼프는 최악 대통령"

10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나치 독일에 비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출처 슈워제네거 트위터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맹비난했다. 그는 당시 폭력 시위에 대거 참여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를 나치 독일에 빗대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실패한 지도자이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연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출신의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자랐으며 '크리스탈 나흐트(수정의 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지난주 수요일(6일)은 미국판 '수정의 날'이었다"고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수정의 밤은 1938면 독일 나치 대원들이 자국 내 수만 개에 달하는 유대인 가게를 약탈하고 250여 개의 유대교 사원에 불을 질렀던 사건을 일컫는 말로, 나치가 깨부순 유대인 가게 유리 파편에 온 거리가 반짝거렸다고 해 이렇게 불리게 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사태를 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극우단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가 당시의 나치 독일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슈워제네거가 '미국판 수정의 날'이라 지칭한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폭도들은 단순히 의사당의 유리창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신념까지 산산조각으로 깨트렸다"며 "그들은 민주주의 전당의 문을 부순 것은 물론이고, 건국 원칙까지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효선 기자 hsbyun@

코오롱 '희망나눔 성금' 7억 전달

코오롱그룹은 11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나눔 성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승일〈사진 왼쪽〉 코오롱그룹 부사장, 김연순〈오른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코오롱그룹은 성금 중 일부를 '도시 놀이터 개선 사업'에 쓰이도록 지정했다. 이 사업은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지역 어린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달님어린이공원', 강북구 '색동어린이공원',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초록숲놀이터', 강서구 '다운어린이공원', 성동구 '도선어린이공원' 등을 새로 조성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오승현 전무·배명직 대표,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두산인프라코어〉 〈기양금속공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1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오승현 두산인프라코어 전무와 배명직 기양금속공업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한다.

대기업 수상자인 오승현〈왼쪽 사진〉 두산인프라코어 전무는 수입에 의존하던 굴착기 MCV(Main Control Valve)를 국산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굴착기 개발을 주도해 우리나라 건설기계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굴착기 MCV는 모든 동력을 분배, 제어하는 동시에 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 기술이 요구돼 굴착기 부품 중에서 최고 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오 전무는 세계 최초로 일체형 골격 형태의 중형 굴착기용 MCV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해외 MCV보다 연비는 12% 개선하고 제작 원가는 20%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통해 국내 유압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배명직〈오른쪽〉 기양금속공업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전해법을 통한 스테인리스 강판의 흑색 처리기술 개발에 성공해 우리나라 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스테인리스 강판의 흑색 처리기술은 가전, 건축, 생활용품 등에서 은백색이라는 스테인리스의 단일 색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흑색을 포함한 다양한 색상 구현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신기술 개발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부품의 수입 규제로 인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부가 가치 소재를 국산으로 대체하고 수출 기회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신한은행, 7개국 학생 210명에 해외장학사업

신한은행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하는 해외장학사업 일환으로 7개 국가 대상 초·중·고·대학생 210명에게 장학금 7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 해외장학사업은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 제공과 우수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1997년 중국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총 7개 국가의 현지법인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2020년까지 총 6698명에게 약 12억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현지의 상황에 맞춰 화상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소규모로 장학금 전달식 등을 실시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인도 마니푸르 대학교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율래 삼성미래기술재단 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8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조율래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를 13일 자로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창의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조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리더십과 역량으로 창의재단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창의재단을 과학중심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진주원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정비과장 김기용

◆**도로교통공단** ◇본부 전보 △감사실장 김은정 △혁신조정처장 김정래 △기획예산처장 이국환 △ICT융합처장 윤찬균 △회계처장 최규호 △사회가치처장 유성준 △교통과학장비처장 나정무 △방송기술처장 안만홍 △면허관리처장 노유진 △면허시험처장 유충섭 △연구기획처장 유태선 △미래교통연구센터장 권기환 ◇지방조직장 전보 △인천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박석훈 △전라북도지부 지역본부장 박경민 △경상북도지부 지역본부장 김용석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병석 △강서〃 단장 정우택 △서부〃 단장 이호원 △북부〃 단장 홍대규 △용인〃 단장 노명진 △강릉〃 단장 김성곤 △청주〃 단장 정연철 △전북〃 단장 양해준 △제주〃 단장 기용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장 김수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보·신임 △안전관리단장 백귀훈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김락균 △사회적가치추진단장 황신 △심사평가팀장 장광진 △운영지원팀장 최윤수 △인재양성팀장 김기헌 △문화기술개발팀장 조인호 △방송산업팀장 김희숙 △한류사업팀장 김남걸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한광수 △전문위원 조형재 △기획실장 강윤모 △동포단체지원부장 박종환 △연구소통부장 겸 서울사무소장 김봉섭 △e-한민족사업부장 이훈용 △차세대사업부장 김정혜 △한상사업부장 강모세 △인권사업부장 임자림 △감사실장 박준희

◆**아이엘그룹** ◇아이엘사이언스 △조명사업부문 대표 신금성 △E&C사업부문 대표 한창용 △최고기술책임자 CTO 오성호 △최고전략책임자 CSO 지정석 △최고재무책임자 CFO 안광인 △렌즈사업부 이사 김덕중 △H&B LAB 이사 조윤석 △H&B사업부 이사 김태석 ◇아이엘커누스 △대표이사 최경천 ◇아이엘라이팅 △대표이사 유상현 ◇어헤즈 △공동대표이사 김유성 오태인

◆**네파** △영업총괄 상무 이석용

◆**KBS** △노사협력주간 박철배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장 김현석

◆**현대일보** △대표이사 부회장 이상근 △대표이사 사장 김창수

부음

▲**공성훈**(성균관대 미술학과 교수·서양화가) 씨 별세 =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3일 오전, 02-2227-7500

▲**이수갑**(전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씨 별세, **송은달** 씨 배우자상, **이진영·동규**(롯데홈쇼핑 홍보실장)·**성규** 씨 부친상, **손태영·김승현** 씨 시부상 = 11일,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가족장으로 대면 조문은 받지 않습니다),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31-910-7444

▲**김은영** 씨 별세, **김진형**(충북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 씨 모친상 = 10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9시, 02-923-4442

▲**정선채** 씨 별세, **구부환** 씨 배우자상, **정찬형**(YTN 대표이사)·**복희**(중일고 교사)·**옥희**(당수초 교사)·**찬필**(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씨 부친상, **김현정**(시나리오 작가)·**강현·김희정** 씨 시부상, **정해황**(대전교총 회장·둔산여고 교장)·**김상형**(귀둔초 교사) 씨 장인상 = 11일, 충남대 장례식장 VIP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42-280-818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송현경제연구소장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집값 폭등을 시장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한다. 집값은 당연히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고, 시장은 늘 있는 것이다. 정책 책임자로서는 참 무책임한 말이다. 상식과 경제 논리, 실현 가능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통제 불능의 괴물이 아니고, 주택정책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집값 폭등을 시장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한다. 집값은 당연히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고, 시장은 늘 있는 것이다. 정책 책임자로서는 참 무책임한 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잠잠하던 시장이 왜 문 정부에 들어와서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을까? 이를 깊이 분석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시장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집값은 현재의 수요 공급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유동성과 거시경제 여건, 정부의 정책, 타 투자대상과의 수익률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집값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외형적 요인은 문 정부 때나 이전 정부 때나 별 차이가 없다. 경제성장은 비슷하게 둔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나 서울 인구는 오히려 정체 또는 감소하였다. 주택공급량도 지난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 유동성 상황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시기와 비슷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고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언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찾아야 집값을 하향 안정시킬 방안도 나온다.

문 정부의 집값 폭등은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즉 심리적 요인이 크다. 한국은 계속되는 저금리 정책에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특혜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했다.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는 시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촛불정부이며 정상적인 정부라고 생각되던 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니 특혜 축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특혜를 확대하기도 하여 부동산에 관한 한 적폐 세력의 일부였다.

문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켜 저금리 정책을 더 확실히 했다. 예금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은 이자 걱정 없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왕창 주었다.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규제를 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하면 누가 좋아질까? 집이 귀해져 집 가진 사람, 즉 기득권층만 좋아진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집세가 올라 더 나빠진다. 수없이 나온 부동산대책은 대부분 변죽만 울리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투기세력은 문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고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 당연히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기대심리가 시장을 지배했다. 시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상한 정책과 황당한 주장으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심리를 심어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 집이 당장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대출을 최대한 받아 투기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다. 빚내서 집 산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저축한 사람이 인생의 패배자, 즉 벼락 거지가 되었다.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은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다.

문 정부 사람들의 황당한 주장 몇 가지만 들어보자. 첫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집세는 안정되어 서민들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야말로 경제를 1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당연히 집세도 오른다.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임대차보호법보다는 폭등한 집값이 집세에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집을 대충 수리해 살라고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 안 추운 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다. 셋째, 20억 원짜리 1주택자는 착한 사람이라 세금을 깎아주어야 하고, 3억 원짜리 3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이 몇 채 있느냐보다는, 집값이 총 얼마이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는다. 그래야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사라지고, 강남이나 서울의 집값이 안정된다. 이외에도 황당하고 이상한 주장은 아주 많다.

정책당국자는 상식과 경제 논리, 실현 가능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통제 불능의 괴물이 아니고, 주택정책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다.

대방로

김희정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 자문센터장

새해 자산관리 '호시우행'의 자세로

코로나19로 휘청거렸던 2020년을 보내고, 희망을 품은 '신축년' 흰 소띠의 해가 밝았다. 흰색 한우는 희소성이 강하여, 예로부터 '백우'가 태어나면 길조로 여기고 좋아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백우는 일제강점기에 황색 한우만 순종으로 인정하여 사실상 멸종되었다가, 수년 전 복원해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백우의 좋은 기운을 품은 2021년, 올해는 무언가 특별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만 할 것 같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으나, 자산시장만큼은 '동학개미', '빚투', '영끌' 등 투자 관련 다양한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뜨거웠던 한 해를 보냈다.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나라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꿈틀꿈틀 올랐으며, 금은 물론 비트코인까지 그야말로 거의 모든 자산시장이 상승장을 연출했다. 투자한 사람이라면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언론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투자 성공 스토리는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이라 불리는 소외감까지 느끼게 할 정도였다.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투자열풍에 힘입어 저금리 시대의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체감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개인투자자가 많아졌다. 가정에서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투자하는 부모님도 종종 접하게 된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전문가들의 노후 대비 조언을 귀담아들으며, 일찌감치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20~30대도 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투자 판단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지난해 이미 오른 자산시장에 뒤늦게 합류해도 될는지, 노후를 위한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쌓으라는데 당장 적은 수입으로 얼마만큼의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아쉽게도 우리는 어려서 공교육을 통한 금융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반인이 투자관련 지식을 얻으려면 언론이나 서적, 금융 관련 매체, 인터넷이나 지인의 사례 등을 통해 얻는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자신의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에 앞서 중요하게 챙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재 보유자산의 진단과 재무목표 수립이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자금흐름을 예상해 보는 등 나에게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최근 금융기관마다 고객의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한층 전문화된 세무·부동산·법률 자문단까지 갖추고 고객 맞춤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의 자산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현금흐름을 파악하여, 고객은 본인의 니즈에 최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수 있다.

자산관리서비스는 여전히 소수의 고액자산가나 VVIP 고객이 받아 볼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라 여겨지고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 누구나 손쉽게 맞춤형 자산관리를 받아볼 수 있도록 금융기관마다 스마트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새해가 밝으면 각자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한다. 호랑이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소처럼 우직하게 실천에 옮기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새해에는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길조로 여겨져 온 '흰소'의 희망찬 응원을 받으며 우리 모두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기자수첩

김벼리 산업부/kimstar1215@

K좀비와 배터리

얼마 전 외국계 배터리 업체에 다니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사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브랜드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좀 말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비록 소비재는 아니지만, 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전략이었다. 유명 건전지 브랜드 '에너자이저' 같은 식이다. 상금이 꽤 짭짤하니 당첨되면 한턱내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신규 브랜드에는 긴 수명, 장거리 주행, 고속 충전 등 배터리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최대한 많이 담겨야 했다. 서로 나름의 유머를 곁들인 단어들을 내뱉던 중에 '좀비'라는 단어에 꽂혔다.

좀비는 웬만해서 죽지 않는다. 좀비는 일종의 '언데드(Undead)', 그러니까 죽은 상태도 아니고 죽지 않은 상태도 아닌 존재다. 약점이 없진 않지만 웬만해서는 죽을 일이 없다.

체력도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다. 뇌가 무엇인가에 잠식됐으니 힘들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더구나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 나온 '한국판 좀비'는 속도까지 빠르다. 전력 질주로 산 사람들을 쫓는다.

이렇게 '최강의 배터리'를 묘사하며 머리를 굴리던 차에 지인은 뜻밖의 화제를 꺼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말하며 배터리 업체들이 성능을 최우선시하며 수주 경쟁을 벌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 주행거리, 충전 속도를 높이려 한다. 이 상황에서 한 배터리 업체가 안전을 생각해 성능을 조절한다면 바로 경쟁사에 수주를 빼앗길 것이다. 지인은 이런 구조상 배터리 업계에서 치킨게임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나는 그렇다면 먹잇감을 향해 경쟁하듯 질주하는 한국형 좀비야말로 현재 업계의 초상(肖像)이 아니냐며 무릎을 탁, 쳤다. '좀비'라는 브랜드로 술 얻어먹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과 함께.

이투데이, 말투데이

☆ 쿠쟁 명언

"철학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현존하는 것을 정립하고 기술할 뿐이다."

프랑스 철학자. 저서 '근세철학사 강의'로 프랑스에 철학사 영역을 처음 확립한 그는 여러 학설을 종합해 낸 절충주의자이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792~1867.

☆고사성어/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의 싸움'이라는 말. 인간이 고뇌하고 집착하며 매달리는 일들이 자연계의 규모에 비하여 티끌처럼 부질없음을 말한다. 위(魏)나라 혜왕(惠王)이 제(齊)나라를 공격하자는 의견을 대신들에게 물었을 때 결론이 나지 않자 재상 혜자(惠子)가 현자인 대진인(戴晉人)을 천거했다. 그가 한 말.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에 촉 씨(觸氏), 오른쪽 뿔 위에는 만 씨(蠻氏)라는 나라가 영토 싸움으로 수만이 죽었다 합니다. 이 넓은 우주와 비교해 제나라와 위나라가 달팽이 더듬이 위의 촉 씨와 만 씨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출전 장자(莊子) 칙양편(則陽篇).

☆ 시사상식 /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큰 사고는 갑작스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법칙이다. '1:29:300법칙'이라고도 한다. 사고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다.

☆ 속담 / 기름을 엎지르고 깨를 줍는다

많은 손해를 보고 조그만 이익이나마 구한다는 말.

☆ 유머 / 대꾸 못한 이모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라고 언제나 핀잔주는 이모가 집에 오자 조카가 "이모는 커서 뭐가 될 거야?"라고 먼저 물었다. 이모가 "난 다 컸지"라자 이어진 조카 질문. "그럼 이모는 뭐가 된 거야?"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사진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美 CPTPP 재참여와 아태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김 수 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전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통상정책 중 하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한 것이다. 미국은 현시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재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아태지역에서 미국은 지금 무역 참여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태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CPTPP 참여 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간 패권경쟁 등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대전환기에 CPTPP 재참여를 통해 무역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깊은 불황 속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에 대한 미국민의 태도는 아태지역에 기반을 둔 무역협정에 재참여하는 정책 창구를 다시 열 정도로 충분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맞설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면 더욱 그렇다.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메가 무역협정인 CPTPP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노동, 그리고 환경 등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급망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CPTPP에서 합의된 공통된 원산지 규칙을 포함한 공유된 표준과 규범은 아태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없이 일본 등 11개국이 최종 타결한 CPTPP에 미국이 복귀하는 길은 있을까?

CPTPP 재참여 전망은 미국이 제안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기존 회원국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CPTPP 국가들의 무역담당 관료들이 미국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환영과 반대 중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과거 TPP 협상 중 미국의 철수에 의해 상처를 입은 회원국들은 미국의 광범위한 수정 요청을 경계한다. 또한 의회 승인 과정의 불확실성에 익숙한 국가들은 그들의 대통령 선거 주기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도전과 기회를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재참여를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들이 있다. 우선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중간 단계에서 부문별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CPTPP 회원국과 협상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재구축하며, 추진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한된 분야에서의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초기 협상을 위한 유망 분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무역 제한과 취약성을 드러낸 의료 및 기타 필수 제품의 거래, 민주당 행정부의 특별한 관심사인 무역과 환경·기후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첫째,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무역협정, 특히 CPTPP에 대한 내부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더 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역협정의 역할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미국 대중들에게 아태지역의 파트너들과의 폭넓은 무역 협력이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미국의 무역을 다각화하는 대안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의회뿐 아니라 경제 주체인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CPTPP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무역은 선진 경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무역협정은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고임금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먼저 CPTPP 회원국들이 가진 제약조건, 우선순위, 그들의 관심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CPTPP 재참여를 위한 노력에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발효와 함께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7개 회원국의 견해는 미국의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는 통상당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의기구에서 CPTPP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무역과 통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2017년 미국의 TPP 탈퇴 전까지 참여국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진행한 8년간의 협상에서 도출한 합의 내용은 향후 진행될 재협상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CPTPP 협정에 대한 이전의 반대와 국내외적 도전 및 과제를 감안할 때, 일부에서는 CPTPP 복귀에 상당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PTPP 재참여는 글로벌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아태지역의 무역 및 통상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아울러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항한 대안적 경제 모델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재참여에 대한 정책 옵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 설

文 대통령 '경제 낙관' 신년사, 현실 진단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낙관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일상을 되찾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우려가 큰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불안을 키운 데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회복·포용·도약'으로, '경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절박한 현안이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작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가 2000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들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1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그럼에도 공허하다. 한국 경제를 장밋빛으로 내다봤지만, 그나마 기업경쟁력이 바탕이 된 수출로 지탱하고 있을 뿐, 뒷걸음질하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실 진단이 결여돼 있다. 투자와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숨통을 막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기업규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 등을 여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자찬(自讚)했다.

주목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다.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만 해도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자신만만하던 것과 달라졌다.

이제야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신호이지만, 이 정부가 임기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론되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인센티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방안에 시장은 아직 냉담하다. 끝없이 수요 억제로 일관해온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사과했다면,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부터 공급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노트북을 열며

박 병 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산업부2차관, '우보만리' 소의 발

새해가 밝았다. 소의 해여서 그런지 신년사에 우보만리(牛步 萬里)란 사자성어가 곳곳에서 보인다. 소의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뜻이다. 1리는 392.7m로 1만 리는 3927㎞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77㎞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8번 가는 거리, 왕복으론 4번의 거리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거리가 아니고 우직한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하다 보면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뜻한다.

정부 부처도 올해 주요 정책 추진, 이슈 해결 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고용, 경제 회복, 한국형 뉴딜, 코로나 종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산업, 에너지, 통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빅3 신사업으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실물경제 지표인 수출을 안정인 플러스로 이끌어야 한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도 찾아 풀어야 하고 2년 전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금지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인 소·부·장은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 스마트그린산단, 미래차 인프라 등 체감형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광역시도별 대표산업을 육성해 지역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의 길도 가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등으로 인한 지난해 장마와 태풍의 자연재해를 우린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온난화로 빙하는 녹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산업부 2차관(에너지) 신설을 지시했단 점이다. 산업부 2차관 신설은 탄소 중립과 안전한 에너지 사용 등을 위한 정책에 힘을 주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 처지에선 2차관 신설이 반가운 일일 것이다. 당시 여기저기서 2차관이 누가 올지에 대해 궁금해했었다. 현직 공무원일까, 전직 공무원일까, 에너지 관련 외부인사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추측과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2차관도 중요하지만 2차관 신설을 통해 일하는 조직이 신설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냔 생각이 든다. 2차관 신설이 기존 조직 위에 차관 자리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물론 에너지를 담당하는 2차관이 각종 에너지 정책, 이슈 등에 혜안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지만,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차관보다 직원들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그 일을 하는 직원, 그 일을 맡는 담당부서가 더 필요하다.

회사 등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수한 인재를 '손, 발 같은 존재'란 표현을 쓰곤 한다. 이런 일꾼들이 많을수록 조직은 성장하고 생동감도 넘친다. 그런 손, 발 같은 존재가 없다면 그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망하기 마련이다.

신재생, 수소경제, 탄소 중립 등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그 업무를 전담할 부서, 그 부서에서 일할 손, 발이 있어야 한다. 우보만리의 소도 만 리를 가려면 발이 있어야 한다. riby@

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중국이 13년 만에 특허제도를 변경한다. 6월부터는 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금처럼 손해액만 배상하게 해서는 특허 침해를 막기 어렵다. 미리 실시권 계약을 하느니 침해하다가 적발되면 배상하고 말자는 생각 때문인데, 이번에 중국은 한국이 인정하는 3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국 기업이 취득하는 특허 품질도 외국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주어지므로,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면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은 규정된 학회나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에 발명자 보호를 위해서 6개월 시한을 주었다. 그 안에 출원하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 긴급상황 등에 공개한 발명도 6개월 시한인정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코로나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했다면, 먼저 사용하고 그 뒤에 출원해도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한국은 발명의 공개 후 새로움을 인정받으며 출원할 수 있는 시한이 1년이다. 학회나 박람회 등 공개 사유의 제한도 없다. 누군가 사용했든 보았든 책에 썼든 인터넷에 올렸든 다 인정된다. 전 세계 어디서 공개되었더라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도 자유롭게 그 나라에서 공개된 발명을 1년 안에 한국에서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다. 한국이 전에 그랬듯이, 제도를 통해서 내국인을 보호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 시스템 가입 요건이기도 하다. 한국이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늘렸듯이, 선진국은 보호기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가능하면 보호기간을 짧게 가져가서 자국 기업에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 기술에 뒤따라 발전하는 디자인에서는 중국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전자의 손잡이처럼 물품의 한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을 더 꼼꼼하게 보호한다. 선진국이 중국에 요구해오던 제도였고 이번에 함께 도입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 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빨리 가는 방법보다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당신

비어있는 관객석 앞에서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 당신

면접장으로 향할 수는 없어도
소중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당신

여럿이 함께 있는 곳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 하게 된 당신

달라진 시대,
한 명 한 명의 당신이 원하는
SK텔레콤은 다 다르기에

5천만 명의 매일을 위한
5천만 개의 SK텔레콤으로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마음톡톡 코로나19 심리지원

코로나 19로 마음이 힘들땐 1577-0199로 마음을 연결하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합니다.